

양희은·강석우의

# 여성시대



2009 + 12 + Decem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양희은·강석우의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출산교실〉 이지희 씨,  
〈참~ 화려한 싱글〉 전영미 씨
- 008 **이달의 편지**  
연탄불 외
- 052 **여성시대 특집**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역지사지 발상으로  
치킨업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굽네치킨
- 065 **여성시대 꾸러미**  
소중한 인연 외
-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가족회의
- 079 **성장보고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물
- 082 **부부클리닉**  
부부 연말정산을 하자
- 086 **우리나라 구석구석**  
대하·젓갈·김 찾아가 떠나는  
충남 홍성 여행
- 090 **대중문화 산책**  
한 시대의 종언
-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굴국 한 사발
-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아들의 독립
- 096 **강PD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후일담처럼
- 098 **한 장의 생각**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2009.12 + December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이은주, 강성아 방송  
\_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  
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  
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안홍범

여성시대/월간지/비매출/2009년 12월호 발행\_2009년 12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  
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관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경쾌한 웃음소리로 생명력 나누는

## 〈출산교실〉

이지희 씨



옆집 아줌마,  
아는 언니 정도로  
여성시대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경쾌하다. 매주 월요일 탄생의 신비와 힘찬 생명력을 나누는 〈출산교실〉의 새 얼굴 이지희 씨. 미스 DJ이자, 방송인이자, 탤런트면서, CF 모델이며 두 아이의 엄마다. 둘째를 낳고 육아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 모유수유를 하며 다른 아기엄마들과 육아정보를 나누는 그냥 우리 옆집의 아기엄마의 모습이기도 하다.

“옆집 아줌마, 아는 언니 정도로 여성시대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서로 속내도 내보이고, 두 귀를 쫓긋하니 세워서 얘기도 들어주는 편안한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화사한 웃음 바이러스 전파하는

# 〈참~ 화려한 싱글〉

전영미 씨

이제 화려한  
싱글이 아닌  
화려한 더블을  
만들고 싶어요.

성대모사의 달인 개그우먼 전영미 씨. 늘 화사한 웃음을 선사하며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가 매주 금요일 〈참~ 화려한 싱글〉의 참, 화려한 싱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본인만 울적하고 씁쓸한 싱글이라 생각했는데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긴다는 전영미 씨. “이제 화려한 싱글이 아닌 화려한 더블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건지, 청취자들의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 Letter 01\_ 연탄불
- Letter 02\_ 아버지의 내복
- Letter 03\_ 어머니의 부엌
- Letter 04\_ 고마운 사람들
- Letter 05\_ 형님께 드리는 편지
- Letter 06\_ 전단지 붙이는 일
- Letter 07\_ 앨범 사진 찍던 날
- Letter 08\_ 시각장애인 시부모님
- Letter 09\_ 희망을 준 농촌현장인턴
- Letter 10\_ 사랑의 기술
- Letter 11\_ 남자 생활백서
- Letter 12\_ 소원아! 네가 자랑스럽다
- Letter 13\_ 다문화 정이 흐르는 동네



• 일러스트\_ 박지현



## 연탄불

● 글\_조윤녀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내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나가면 설거지·청소 등 집안 살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연탄불과 곤로(풍로)를 사용했고, 아궁이에 불을 때던 시절이었죠.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연탄불은 꺼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추운 겨울엔 번개탄에다가 산에 떨어진 갈비(솔잎)를 뿌려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솔잎이 휘타올라 번개탄이 별경게 되면 다 탄 하얀 연탄을 아궁이에 먼저 넣고 번개탄을 넣은 후, 시커먼 새 연탄을 위에 넣고 불구멍을 맞추면 금방 연탄불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연탄을 다른 아궁이에 넣고 또 연탄불구멍을 몇 번씩이나 맞추다 보면 코에 혹 끼쳐오는 연탄가스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 방에 들어가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좀 진정을 하고 다시 나와 연탄아궁이에 불을 맞추던 그 시절, 꺼진 연탄불을 살리고 새 연탄으로 가는 일은 큰 고역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수시로 커다란 마대자루를 들고 뒷산에 올라가 산길에 떨어진 솔잎과 솔방울 그리고 잔가지 등을 긁어모아 마대에 가득 담아 집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날마다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녀서인지 손이 거북이 등처럼 되어 도 어쩔 수 없었어요. 추운 겨울,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은 냉골이고, 엄



마와 아버지가 식당에서 주무시고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제가 그 일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엔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귀찮아 소변을 꼭 참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연탄불도 갈지 않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 날 아침이면 몸이 으슬으슬 춥고 동생들은 콧물범벅이 돼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귀찮아도 연탄불을 갈 때가 되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 꼭 갈고 잤습니다. 밤에 자다 따뜻한 이불 밑을 빠져나와 연탄을 갈러 밖으로 나오는 일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세 명입니다. 저는 맏이라 묵묵히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하고, 연탄불도 갈았습니다. 그때는 따뜻한 물도 없었고 입식 부엌도 아니어서

쌀 한 번 씻으면 손이 벌겍게 되고 시려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밥을 짓곤 했습니다.

국을 끓일 땐 풍로를 사용했죠. 심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를 올려놓은 다음 국이 끓고 나면 심지에 붙은 불을 불어서 꺼야 하는데, 아무리 세게 불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여러 번 불다 보면 숨이 차고 시커멓게 그을린 냄비 바닥을 닦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연탄을 갈러 화덕에서 연탄집게로 꺼내면 연탄끼리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떼려고 연탄집게로 뜨거운 연탄을 때리다 불뚱이 바지에 튀어 화상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땐 화끈거리는 발을 찬물에 담갔다 아무 연고나 바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말끔히 나온 걸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연탄 때는 방법이라도 좀 가르쳐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달라붙은 연탄을 식칼로 해결했습니다. 식칼로 단번에 내려치니 정말 한 방에 연탄이 떨어지더군요. 그 칼을 찬물에 쓰윽 행구고는 다시 파를 썰고, 무를 썰고, 김치를 썰고, 반찬도 하고 그랬지요.

연탄불에 밤을 그냥 올려놓았다가 밤이 ping 소리를 내며 튀어 오르는 통에 혼비백산한 적도 있어요. 밤에다 칼집을 내어야 한다는 걸 아무도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땐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경험의 쌓이니 이내 알아서 척척하게 되더라고요.

집안일에 나무까지 해 와야 하니 겨울이 오면 제 손은 언제나 터서 피가 배어 나오고 따갑고 쓰러렸습니다. 동생들이 어쩌나 부럽던지요. 그 당시 학교에서 용의검사를 하면 항상 일하느라 거칠게 튼 손을 내놓기 부끄러워 그때 제 소원인 손 안트고 겨울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연탄불 걱정 안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 아버지의 내복

● 글\_한오순 | 부산시 북구 구포동

나는 가끔 환청이 들린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 그릉그릉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럴 땐 속으로 “아부지, 오셨는교” 하고 인사를 건네 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남 5녀나 되는 자식들의 집을 순례하는 것처럼 돌고 도셨다. 첫째 주는 전라도 해남에 있는 언니네, 둘째 주는 서울에 있는 오빠네... 그렇게 7남매의 집을 돌던 아버지가 우리 집에도 오셨다. 남편 없이 사는 집인지라 다른 형제보다 작고 초라한 집이건만 아버지는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고, 우리오순이 집이 최고 편타” 말하고 웃으셨다.

“아부지, 우리 집이 편한교? 언니들이 잘해줄긴데. 아부지도 알다시피 내는 월요일 되도 직장에 나가야 하나까네, 식사도 못 챙기드러는데 안 불편하겠는교?”

“그릉그릉 콜록. 아이다, 개안타. 내가 챙기 무모 되는데 뭘.”

“걱정이 돼서 그렇지에.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는교?”

“갈 길이 구만리인 사람이 병원 가서 돈을 왜 쓰노, 가서 빨래나 마저 하거라.”

병원이라도 가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우련만 아버지는 안가시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다.

바람 든 무마냥 내 가슴엔 구멍이 숭숭 나는지도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아버

지가 야속하기만 했다.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다 돌아가신 후 부쩍 기력이 없으시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자 해남에 있던 땅이며 집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오빠와 같이 산다며 올라가셨다. 그리고 몇 달 후, 7남매 자식들의 집을 순례하게 된 것이다.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지한 것처럼...

아버지는 7남매 중 유독 나를 예뻐하셨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과부가 된 내 처지를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지지고 볶고 살야도 서방이 있어야 하는 건데...”라며 말이다.

몇 달을 그릉그릉 소릴 내며 안방에서 이불을 뽁뽁 두르셨음에도, 한겨울도 아닌 벌이 따사로운 가을에도 내복을 입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에 “아버지! 새 내복 한 벌 사올게” 라고 한 나에게 “아이고 댘다. 정순이하고 길남이가 사준 내복이 아직도 몇 벌이나 더 있다” 하며 챙겨 오신 보따리를 풀어보라 하셨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최근에 산 것으로 보이는 새 내복이 몇 벌 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샀을 법한 내 눈에 웬지 낯설어 보이지 않는 내복 한 벌도 보였다.

“이거, 억수로 오래된 거네.”

“그 내복? 그거 니가 일해가꼬 처음으로 사준 내복 아이다. 허허허.”

그 내복을 사준 게 언제였던가. 30년도 더 된 내복을 새옷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다니.

내가 열일곱 살 때쯤이었다.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상경하여 방직공장에 입사한 나는 매일 재봉틀을 돌리며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가끔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다. 짹 짹 씹는 희미하게 불을 밝혀주는 전구 밑에서 침을 발라가며 편지를 쓴 다음 내복을 곱게 싸서 보낸 그날은 내가 첫 월급을 탄 날이었다. 행여 치수가 너무 커

서 안 맞을까 걱정이 되어 ‘너무 커서 못 입겠으면 말을 해주세요’ 라고 편지에 써서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당연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글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도 혹시라도 옆집 사람에게 부탁해 편지를 보낼까 싶어 편지를 썼던 것이다. 오지 않는 답장에 그러려니 하고 지내던 어느 날,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며 일을 하고 있던 나를 공장장님이 불렀다.

“오순아! 회사에 누가 찾아왔는데 얼른 가봐.”

‘누가 나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니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계시는 어머니와 닳고 닳은 한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신 아버지께서 나를 반기셨다. 낯선 서울,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 반가움과 애뜻한 마음이 겹쳐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고 어머니 머리에 있던 보따리를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다.

“하이고, 여기 서울까지 무슨 일이라에.”

“바쁜데 찾아온 거 아니가? 니 오빠네 집도 들를 겸해서 같이 안왔다.”

어머니는 까칠한 손으로 내 볼을 쓰다듬고, 아버지는 허허허 하고 웃으셨다. 나는 “안 바빠에. 어무이 · 아버지 쪼매만 기다려 주이소” 하고 부랴부랴 공장장님께 조퇴 허락을 받고는 외출복으로 같이입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중국집으로 향했다. 자장면 세 그릇을 시켜놓고 구수한 향기를 마음껏 느끼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느라 힘들지 않는지, 행여 끼니를 거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부를 묻기에 급급하셨다.

마침 생각이 나 나는 “어무이 · 아버지 내복 받았지예? 치수가 맞던교?” 하니 아버지는 탁하니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으며 “아야 사이즈가 꼭 맞더라. 어찌 그리 사이즈를 잘 아노” 하시며 발목에 걸쳐진 양말을 내리는데 내복을 몇 겹이나 접어서 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아버지는 사이즈 안 맞으면 말하라고 편지도 써서 보냈고만 그냥 입

었는교” 하고 살짝 눈을 흘겨주곤 “어머니는예?”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피약별에 그을린 얼굴에 미소를 담고는 “나는 아까바가 못 입겠드라. 어찌 그리 곱노. 내 살다 그리 예쁜 내복은 첨 봐따이기가” 하며 마냥 좋아 웃으셨다.

나는 “입으라고 사준 걸 왜 아끼고 그래에. 꼭꼭 입으이소. 내가 돈 벌어서 또 사줄 테니까네” 하고 몇 번이나 당부한 끝에 “그러마” 하는 어머니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어머니와 중절모를 쓰신 부모님이 눈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회사로 들어가는 길 골목에서 평평 울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내복을 사서 보내주었지만 늘 부모님 옷장에는 내가 사준 내복들이 쌓여 있었다. 아끼고 아껴 입느라 살아생전 다 입지도 못한 채 내가 처녀시절에 사준 내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벌이나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고이 간직하셨던 그 내복을 아버지 또한 버리지 못하고 챙겨서 7남매의 집을 들고 도셨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셨다며 계셨던 몇 달, 수발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못 해드린 이 못난 딸의 집에서 어느 날 정적이 휩싸인 가운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곁으로 가셨다.

아버지가 입으셨던 옷가지들을 태우다 병석에서 입으셨던 아버지의 내복이 나와 코를 가져다 대니 지린내가 진동했다. 아마도 거동이 불편하셨던 아버지가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몇 번 옷에다 소변을 지린신 것 같았다. 그 지린 내마저도 나에겐 향기로운 아버지의 냄새로 느껴지던 날이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내복 3벌과 지린내 나는 아버지의 내복을 마음속에서 태워 보내드렸다.

‘아버지 어무이에 하늘에서도 추울지 모르니까네 이거 꼭 입으이소. 아깝다고 또 아끼지 말고에.’

시장에서 한쪽에 쌓인 내복을 보면 “이리 고운 내복은 살다 처음 보았다” 며 미소를 짓던 어머니와 병석에서 내복을 입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내복을 보게 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



## 어머니의 부엌

● 글\_이정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시어머님은 정갈한 살림 솜씨로 시골 농부의 집 같지 않게 말끔하고 쾌적하게 집을 정리해서 시택에 가는 일이 즐겁습니다.

시어머님의 냉장고는 항상 모든 내용물이 일렬종대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찬통은 크기별로 반듯반듯하게 놓여 있고, 내용물 역시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담겨 냉장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집 냉장고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채 들어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 있는 반찬통들이 쌓여 김치 하나를 꺼내려고 해도 술래 잡기 하듯 냉장고를 뒤져야만 합니다.

어머님의 부엌에서는 어머님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음식을 끓이는 냄비는 모두 용량보다 커야 합니다.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들 오염시키는 일은 어머님의 부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규칙 덕분에 사용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어머님의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이물질 하나 없이 아직도 반들반들 빛이 납니다.

밥을 짓는 냄비에는 밥만 해야 합니다. 밥 냄비에 찌개를 끓이면 냄새가 밴다는 어머님만의 고집 탓에 네 명의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신혼시절, 부엌에서 소리 없는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의 규칙을 모르고 밥 냄비에 생선찌개를 해버린 새 며느리에게 야단 대신 조용히 냄비의 내용물을 다른 냄비로 옮겨 비우고 묵묵히 냄비를 닦고 또

닦고 물을 잔뜩 부어 팔팔 끓여 소독까지 하셨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새 며느리에게 먼저 경험한 윗동서로서 미처 알려주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어머님 부엌에서의 철칙들을 설명합니다.



제 부엌에서는 규칙 따윈 없습니다. 어머님처럼 밥 냄비와 찌개 냄비 구분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비어있는 냄비에 요리를 합니다. 두 끼 이상 상에 올리고 식구들의 손이 잘 가지 않아 남아 있는 찌개나 국을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비어 있는 냄비에 요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사용할 냄비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냄비의 오래된 내용물들을 눈 질끈 감고 비웁니다.

넉넉 국물로 냄비 돌레, 특히 손잡이 부분엔 거뭇거뭇 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손잡이가 행사 때나 철수세미 세척 서비스를 받습니다.

많은 음식 준비로 분주한 명절에도 어머님의 부엌은 언제나 말끔합니다. 며느리들이 오기 전에 생선은 비늘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되어 크기도 딱 맞는 통에 반듯반듯하게 담겨 있습니다. 생선 위에 올릴 노란 지단·하얀 지단·빨간 실고추도, 검정계·흰깨도, 곱게 어썰기기로 모양을 낸 대파의 파란 잎 부분도, 단장을 마치고 너무도 정갈하게 찬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햄·맛살·파란 고추·버섯은 이쑤시개를 기준으로 키 높이를 맞춘 채 곱게 단장하고 누워 있습니다. 곱게 썬 파란 고추와 다진 오징어가 합해 있고, 빨간 고추 색 맞추어

잘 어우러진 동그랑땡도 며느리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추수한 고구마전 · 호박전 · 무전 · 우엉전 · 파전 · 미나리전이 차곡차곡 채반에 담기면 아이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닭 · 돼지고기 · 꼬막을 삶고 고사리 · 토란대 · 고구마대 · 시금치 · 무채 등 각종 나물들도 정갈한 어머니의 손길로 마무리 후 차곡차곡 냉장고 안을 채웁니다.

네 며느리들이 각자 맡은 음식을 준비할 때, 시어머님은 부지런히 임무를 마친 그릇들을 제 위치에 갖다놓느라 바쁘십니다. 짧은 임무를 성공리에 마친 그릇들은 세제로 뽀드득뽀드득 상쾌하게 샤워를 마치고 마른 행주로 물기가 제거된 후, 곧바로 제 집으로 원 위치 되어 다음 임무 때까지 잘 정돈된 채 기다립니다. 텅텅한 극치를 달리는 저는 신혼 때 어머니의 규칙이 너무도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댁 가는 일이 즐겁지가 않았습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제 부엌에서의 살림보다 어머니 부엌에서의 살림이 더 좋아졌습니다. 항상 깨끗이 치워진 말끔한 부엌에서의 살림은 달랑 네 식구인 우리 식구의 식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사 준비를 하는데도 훨씬 빠르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휴일에 시댁에 가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농사일에 피곤하실 텐데도 아버님을 위해 준비하는 밥상은 언제나 정성이 넘칩니다. 삼시 세 끼 작은 접시에 반찬들을 촘촘하게 반찬통 밑에서 덜어내 정갈하게 담아 깨를 뿌려 맛깔스럽게 장식하고, 가지런하게 수저와 젓가락을 놓습니다. 아버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준비한 구수한 누룽지와 송충까지 내놓은 다음에 어머니는 수저를 드십니다. 일 줌 한답시고 하루 두 끼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 채로 남편의 상을 차려주는 제 모습을 들킬까 불안하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참깨 · 들깨 · 콩 · 팥 등 모든 곡물도 다른 집들 것과는 금세 구분이 됩니다. 찌꺼기 하나 없고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알갱이들로만 골라 정갈하게 네 며느리들 몫으로 담아 놓고 다녀가는 순서대로 차에 실어주십니다. 마늘은 까서 쯤

고, 일회용 봉지에 담아 얇게 편 뒤 롤처럼 말아 냉동시켜 떼어 먹기 좋게 만들어주십니다. 참깨는 깨끗하게 계피를 타서 고소하게 볶아 놓고 먹던 것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어떻게 아시는지 또 챙겨주십니다. 계절마다 채소를 뽑고 다듬어 마르지 않도록 신문지에 말아 담아주십니다.

어머님의 둘째 며느리로 살아온 17년 동안 당연한 듯 뻘뻘스럽게 날름날름 잘도 받아 오기만 했습니다. 17년 동안 참으로 호강에 겨운 무심한 며느리였습니다. 모내기 하느라 힘들어 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 시골에 사시는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려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기 조금 사드리고, 간식거리만 보내드리며 내 할 일 다 한 듯 착한 며느리인 양 아내 잘 만난 줄 알라고 남편에게 으스스했습니다.

수확 철, 햇볕에 까맣게 그을리고 피곤에 입맛까지 잃으셔서 끼니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 지칠 대로 지치신 어머니를 뵈는 그 순간만 조금 마음이 아플 뿐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고 지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세월이라는 강적 앞에 무기력하게 점령당해가는 어머니의 무거워진 손길에 매정하게 많은 티를 내고 있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살림비법을 아직 전수받지도 못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부엌을 생각하며 팔 건어붙이고 오전 내내 부엌에서 씨름한 결과 어느 정도 어머니의 부엌을 닮은 것 같은 모양새는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맛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난 강된장에 사각사각 무채 섞은 기막히게 맛난 비빔밥을 볼이 미어저라 몰아넣고 어구적어구적 먹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훈훈한 부엌이 너무도 그롭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넘치도록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



Letter 4

## 고마운 사람들

● 글\_이태희 | 경남 창원시 대방동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심한 경제난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평생을 부자로 맘 편하게 살다간다면 그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은 ‘돈이 없어도 사람 때문에 진짜 부자인 것 같아 너무 행복할 수도 있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 그 고마움을 전하려 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병원비가 무리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었고, ‘몇 달만 고생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 앞에 효자 없다’ 는 말처럼 우리 부부는 병원비 때문에 말다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주위 사람들이 ‘집을 샀네’, ‘주식해서 돈 좀 벌었네’, ‘차를 바꿨네’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보니 자신의 처지가 암울했나 봅니다. 언제까지 병원비를 계속 낼 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자기 속을 들키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도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견어먹여 살려야 하는 거?” 한숨 섞인 말을 툭 내뱉어 버렸습니다. 순간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무슨 큰 죄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친정에 돈을 보태주는 일이 없을 것” 이라며 핏김에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께서 급하게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어떻게 병원비를 구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큰 소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질 않아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께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을 좀 가불해 쓰면 안 될까요? 제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현금으로 가불해 주셨고, 그러저럭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은 어찌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요. 월급날 남편에게 시간을 좀 벌여보려고 “회사사정이 좀 어려워서 월급을 좀 있다가 준다네” 하고 말했더니, 남편은 “월급? 이미 들어와 있던데? 오늘이 당신 월급날이라서 통장 정리했거든” 하더군요.

진짜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월급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근을 해서 사장님께 “저 혹시 제가 가불해간 것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 달 월급이 입금되어 있던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아, 그게요. 월급날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 한 달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넣어 드렸는데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게 메여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데 사장님께서 “꼭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성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드린 후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앉아 평평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화난 것도 있고, 사장님에게 고마운 것도 있고,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끝까지 니가 고생이 많다. 이모가 요즘 일을 한다 아이가. 이번 엄마 병원비는 내가 어찌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모, 나는... 후.”

또 이렇게 전화를 들고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는지 남편이 살짝 다가와 휴지를 건네면서 “바보같이 그 자존심이 뭐라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노? 우리 둘만 건강하면 된다. 장모님은 내가 끝까지 보살필 테니까 걱정마라. 미안하다. 정말”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안겨서 또 한 번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또 돈 많은 어떤 부자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



## 형님께 드리는 편지

● 글\_서석원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아버지 같은 형님께!  
아 형님! 군에 입대하였던 둘째 조카준식의 첫 휴가에 기쁜 마음도 느낄 새 없이 부대 복귀를 하게 되어 마음이 조금은 울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리에 힘없이 나뒹구는 낙엽에 불현듯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형님의 울타리에서 따스했던 추억을 되짚으며 글을 씁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형님의 발꿈치만 밟고 살아온 제가 이제야 한숨을 돌리고 살아온 나날을 돌아보며, 벌써 제 나이 마흔이 되고서야 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세상에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저는 세 종류로 나누어 마음에 정리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형님은 부모가 아니면서도 지금껏 부모 이상의 역할을 다했지요.

198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우리 형제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어린 우리 형제들이었습니다. 유난히 많이 내린 함박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만물을 축복하는 그날, 어머님은 우리 형제들을 남기고 또 다른 세상으로 멀리 떠나셨습니다.

내 나이 열두 살, 그리고 형님은 스물한 살의 꿈 많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한

국사회의 장남이라는 무거운 멍에와 책임에 얽매어 위로 네 분의 누님과 아래로 부모 잃은 네 명의 동생을 가진 집안의 가장으로 그렇게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이었기에 시집간 누님들에게 하나씩 맡기려 할 때 형님은 그럴 수 없다면서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결심에 의해 우리는 고아는 면할 수 있었지요. ‘어린 동생들을 누님들에게 맡기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조카들 사이에서 질투가 생겨나고 미래도 없다’는 형님의 판단에 의해 우리는 그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고, 뽀뽀이 흩어지는 비극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82년 봄, 성남에 직장이 있던 형님이 그곳에 등지를 들고 아래로 동생 네 명을 모아 함께 살았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형님은 회사 기숙사에서 쪽잠을 자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집에 들렀고, 동생들을 살피며 “밥은 먹었느냐?”, “필요한 것은 없느냐?” 하면서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막내누나가 집안 살림을 맡아하며 학업을 함께할 때도 늘 남들에게 주눅이 들지 않도록 형님은 먹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물질과 사랑과 헌신을 부어주었죠. 그건 우리 동생들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입니다.

당시 형님이 말했던 “밥 먹었느냐?”와 “필요한 것은 없느냐?”라는 말은 어떤 말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말이었음을 부모가 된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스물한 살의 어린 나이. 요즘 같으면 제 앞길, 제 처신도 감당하기 어렵고 친구 만나고 부모님께 한창 손 내밀며 혜택을 누릴 나이였지만 형님은 그러하지 않았지요. 내 초등학교 졸업식 때 형님은 작업복 차림에 꽃다발 하나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어요.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도 그러했겠지만 저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정말 싫었습니다. 친구들의 손에 들려진 카네이션 한 송이마다 기다리는 주인이 있었지만 나에게게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것을 받아줄 주인이 아무도 없었기에 하루가 어색하고 허무하며 온갖 그리움이 나를 짓눌렀죠.

중학교 1학년 수업시간에 뒷자리의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넌 엄마·아빠도 없지?”라는 말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친구를 흠뻑 두들겨 패고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나 아속했고, 모두가 싫었지요.

고등학교 1학년 학기말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하였고, 형님은 성적표를 받아 들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한 채 마냥 “고맙다”라는 말을 되뇌었지요. 그 날 저녁 형님이 유명 메이커 신발을 사가지고 와 신으라고 했을 때 쉽게 눈을 붙일 수 없어 뜯 눈으로 밤을 새던 기억으로 지금도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형님에게 몇 번을 되풀이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또다시 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을 때에도 형님은 제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밤늦게 일을 마치고 작은 형님과 함께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까지 면회를 와서 “오늘이 네 생일인데 같이 밥이나 먹자”라며 삼겹살을 사주었던 기억 또한 새롭습니다.

그리고 1996년 제 결혼식에 부모의 자리에 형수님과 나란히 앉아 마지막으 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셨을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에 겨워 젖은 눈시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아는 모든 축하객들은 함께 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죠.

세상에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님, 형님은 그 어려운 부모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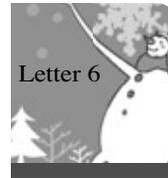
이제 더 열심히 살 것이고, 형님이 베풀었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내가 받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갈증을 나의 두 자녀 윤식이와 윤희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렵니다. 힘들었던 시절은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래요.

형님, 돌아오는 11월에는 첫째 조카 윤식이의 군부대 면회를 다녀올까 합니다. 17년 전, 나에게 다가왔던 형님의 느낌을 제가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형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조카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윤식이와 윤희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그 길에서 옛날 우리 형제·자매의 추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카윤식이의 군부대를 향해 오가는 길, 벌써부터 마음이 들뜩니다.

부모님 같은 나의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형제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



## 전단지 붙이는 일

● 글\_최현주 |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저는 광고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가파른 언덕에 수많은 가구가 옹기종기, 열기 설기 모여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많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외식하러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힘든 지리적 상황 때문에 치킨·피자·자장면 등 먹을거리를 배달시키는 집이 많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집마다 지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계단을 밟고 현관문 혹은 벽에 반듯하게 위아래 떨어지지 않게 전단지를 테이프 프로 붙이지요. 아직은 서툴러 헛걸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길과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계단에 당황한 적도 많아 늘 긴장합니다.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 일을 하지요. 전 적게는 500장, 많게는 1,000장을 붙입니다. 보통 이 일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500장은 붙이는데, 그에 비하면 전 신출내기랍니다. 처음엔 250장을 하다가 그다음엔 500장, 그리고 도저히 못 하겠던 1,000장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도 되고, 살도 빼고, 돈도 벌어 참 좋겠다” 하는데요. 운동치고는 너무 가혹하며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랍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운동화 밑창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일하기를 다들 꺼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7년여 이곳에서 살았지만 집과 시장만 왔다 갔다 했고, 게다가 심한 ‘길치’인 저로서 이동거리가 멀고 낯선 지역보단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들어왔을 때 좋았습니다.

처음 일을 하는 날, 학원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엄마의 일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신기한지 집에 가질 않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이 열려 있을 때는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씩씩대며 거기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꼭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가는 기분 같아” 하고 말하는데, 쿵쾅거리는 아이들의 심장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날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도둑고양이와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들은 일기장에서 엄마가 새로 전단지 붙이는 일을 시작했고, 자기 공부가 끝나면 같이 따

라다니고 싶다고 썼더군요.

일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무렵, 집 근처 빌라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나오는데 마침 순찰중인 경찰차를 보았습니다. 경찰이 제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고, 신상조화를 하더군요. 그때 마침 아들 녀석의 친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경찰과 대화중인 상황이 궁금한지 한참을 꾸물거리며 갈 생각을 안 하기에 “○○야, 엄마 기다리시겠다. 빨리 집에 들어가” 하고 서둘러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일이 불법이니 다음엔 하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것도 잠시 ‘어? 아들 친구가 봐버렸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흑여 아이가 상처라도 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비참함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럴수록 더 독하게 맘먹고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야지’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멀리 이동해서 타지역에서 일을 하나 봅니다. 가족에게까지 상처 주는 일이 생기니까요.

요즘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많은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파 광고도 물론이고 인터넷에 뜨는 수많은 팝업창 그리고 스펀머자, 메일 등. 스펀 광고야 지우면 그만이지만 자기 집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붙는 전단지로 지저분해진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요.

가게에서 왜 전단지를 둘러냐 하면요, 제가 일을 하는 가게는 흔히 말하는 동네표입니다. 근거리 소비자들로만 매출을 올리기에 한계가 있고 지역 특성상 배달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광고가 필요합니다. 전단지를 붙이더라도 당일 매출에는 바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꾸준히 뿌려 놓으면 차차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켜서 먹고 싶은데 전화번호는 생각이 나질 않고 인터넷 검색이나 114 안내가 귀찮은 경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 광고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페인트칠로 새 단장을 했는데 전단지

인해 칠이 벗겨진다던가,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던가 하는 등 이래저래 피해가 많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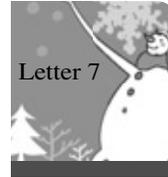
저는 철로 된 문에는 자석을 붙이고,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칠로 된 벽에는 벗겨질 염려가 없겠다 싶으면 안심하고 붙이며, 정 안되겠다 싶으면 까치발로 집호수표지판에 붙입니다.

누군가 “어? 전단지 붙이지 마요”, “여기다 전단지 붙이면 안 돼요”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지요. 어떤 분께선 “어이구, 참 반가운 손님도 오셨네. 이봐요! 거 붙이면 뒤흔해? 그 짜디짠 걸 누가 먹는다고 떼기도 귀찮아 죽겠구만” 하며 비아냥거림이 섞인 화도 내고요. 간혹 “젊은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많이 붙이고 가”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전단지 꾸러미를 들고 있는 절 보고선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께서 “나도 하나 주고 가” 라고 할 때입니다.

그동안 겪은 불편함으로 인해 화가 나서 그렇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소리를 들으면 속상합니다. ‘법에 어긋나고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꼭 이 일을 해야겠냐?’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 삼아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 업주와의 약속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없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적금도 들 만큼 제겐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은 금세 풀리더라고요.

제겐 값지고 보람된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시거든 짜증이 나더라도 불필요하다 싶으면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페인트칠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붙이고 집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요.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



## 앨범 사진 찍던 날

● 글\_주옥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며 칠 진, 중3 작은딸 학교에서 앨범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학생들의 앨범을 제작하는데 엄마들 사진까지 넣어준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에 힘도 주고 화장도 발그레 하고 오랜만에 입술도 바르고 들어서는 엄마들 모습은 마치 중학교 3학년들 같은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설명을 듣고 학교에서 제일 멋진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평소에 학교엘 자주 가지 않아서 그렇게 멋진 동산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기만 하던 엄마들은 어느새 중3이 되었는지 어느 엄마의 곱죽한 농담에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까르르 웃었어요.

사진사가 오기 전에 여기저기 자리를 잡아보고 이리저리 포즈도 취해보고 다같이 한 줄로 서서 상대방 팔을 잡는 전형적인 옛날 사진 포즈도 취해 봤습니다.

사진사가 올 시간은 멀었는데 서로에게 “이리 앉아 봐라”, “저쪽에 서서 찍는 게 예쁘겠네” 하며 위치를 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동산 벤치에 앉은 중년의 엄마들은 모두 그 옛날 교복 입었던 때를 추억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와! 이럴 때 향 그윽한 커피 한 잔 하면 딱이겠다.”

그 말에 모두들 “그래, 마시지 않더라도 향기만 맡아도 좋겠다. 너무 좋다” 했습니다. 그 말에 눈치 빠른 어느 엄마가 “급한 대로 따끈한 캔 커피 한 잔씩 하세요” 하며 따뜻한 캔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우린 캔을 열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엄마가 옛날에 TV에서 봤던 캔 커피 광고를 흉내 내서 또 모두들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진사가 왔습니다. 우리들은 미리 정해놓은 자리에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사는 “어머니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잘 어울립니다. 사

진 잘 나오겠어요” 했습니다.

사진사 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우리들이 한 줄로 늘어서 팔을 올리는데 포즈를 보시고 “옛날에는 이 포즈가 최고인 줄 알았죠? 지금 보니까 역시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아주 좋아요” 하며 셔터를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다 뒀다는 사진사의 말에 어느 엄마가 “우리 엄마들 ‘포샵처리’ 해주세요. 애들 하고 너무 차이 만나게 젊어지게 해주세요” 해서 또 한번 다들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말에 어느 엄마는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제 딸이 20~30년 후의 자기 모습을 볼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앨범 사진을 다 찍은 다음 개인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삼오오 팀을 짜서 또 찍었습니다.

이번 사진은 작품 사진을 찍자면서 다른 팀이 모델할 때 나머지 팀은 떨어져 있던 낙엽을 한 움큼 집어 들고 모델들 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날려주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진 낙엽들이 마치 바람에 날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역시 자연스럽게 않은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사진이 찍힐 때까지 날리고 또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웃음보가 또 터져 깔깔깔 웃느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간은 더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고생한 만큼, 또 만족할 만큼의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앨범 사진 찍기는 끝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옛날 꿈 많았던 교복 입었던 시대로 돌아가서 잊고 살았던 추억을 한 컷 한 컷 꺼내 그대로 해보기도 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소풍 가서 사진사에게 사진 찍어 놓고 그 사진이 나오기만 기다리던 심정으로 그날 찍었던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



Letter 8

## 시각장애인 시부모님

● 글\_이민영 | 서울시 중구 회현동

저는 시각장애 부모님을 모시고 쌍둥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평소에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이 글을 통해 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일 년 반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4년 만에 쌍둥이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두 딸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깨에 커다란 바위가 얹힌 듯한 무게감으로 마음이 혼잡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편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어느덧 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지팡이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알아차립니다. 달려가 한 아람에 안기곤 하죠.

집에선 늘 “사랑해요” 하며 온갖 재물을 부리고, 어떤 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일이 길 안내를 하기도 하지요. 저보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아주 어릴 때에는 “왜 자꾸 눈을 감고 있느냐?”고 물어봐 난감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의 눈이 불편한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병이 나아플 때엔 밤새 끌어안고 울면서 하늘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엄마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삼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습관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방안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날 기분을 파악하기도 하죠. 이렇게 9년이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을 못 보는 장애로 인해 서로 적응하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으시며 차갑기만 한 어머니에게 다가서기가 힘들어 말을 잘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터지더라도 하면 집안이 발각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서운함이 많았지만 ‘미운 정·고운 정’이란 옛말도 있듯이 이내 풀어집니다. 옛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은 여리지만 새벽마다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식탁에 앉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제가 조금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가슴이 찢렁 내려앉는다”고 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저는 성격이 유하기도 하지만 털털하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데, 어머님은 눈이 잘 보이는 저 이상으로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작년 어느 날, 어머님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편은 어머님 곁에서 수발을 들며 병원생활을 해야 했고,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두 아이들과 침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힘없이 다니는 아버님을 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님이 수술하기 전 보호자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의사는 “너무 위험한 수술이라 세 번에 걸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살리실 분은 의사 선생님밖에 없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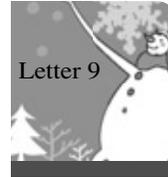
생각에 팔뚝을 붙잡고 “너무 불쌍한 분들이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효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며 목메어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도리어 저를 다독이며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수술은 너무나 잘 되어 어머님은 지금 더욱 건강해 지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젊으셨을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 남들에게 모진 소리, 쓴 소리 다 들어가며 악착같이 지금의 남편을 의젓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비록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순수하고 환한 빛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가끔 아버님이 “니 마음 안다” 하면서 제 마음을 축축하게 해주십니다.

‘어머님 · 아버님! 평생 함께해야 할 부모님이시기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시며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



## 희망을 준 농촌현장인턴

● 글\_김웅태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네! 우리 보물도 잘 다녀오래이.”

우리 집 보물 1호 아들 녀석의 힘찬 목소리가 나의 어깨를 주물러주듯이, 신선한 아침 향기를 만끽하며 칠곡군농업기술센터로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기만 합니다.

2009년 5월 25일부터 시작된 저의 농촌현장인턴의 하루 시작은 늘 아들 녀석의 시원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마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에 각종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농촌현장인턴채용이라는 공고를 보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또 하나의 시향대 위에 저를 올려놓게 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걸 보았을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불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농촌현장인턴이란 말 그대로 농촌의 현장에서 인턴생활을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보통 시·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용을 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출현장 기술지원' 과 같은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 소속으로 발령을 받아 '친환경 유기농 왕우렁이 농법' 을 위한 왕우렁이 사육을 시작으로 하여 깻모 슈아내기, 콩 순치기, 목화 재배하기, 손으로 모내기하기 등 농촌의 일상을 경험하며 점점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피약벌 속에서 온 들판을 누비며 도열병과 흑명나방과 같은 병충해 예찰을 위하여 지도사 선생님들과 같이 흘렸던 땀방울, 논두렁 잡초를 예초기로 제거하다 돌부스러기가 얼굴에 튀어 흘렸던 땀방울, 눈에 자라고 있는 올방개라는 잡초를 뽑다가 잡초에 눈동자를 찢어서 흘렸던 눈물, 뱀에게 물렸지만 다행히 독이 없는 물뱀이었던 이절한 순간 등은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현장인턴 수기에 응모하여 지난 9월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2,195명의 인턴 중 3명을 선발하는 이달의 우수인턴에도 선발되어 농촌진흥청장님의 격려패와 함께 상금을 포함하여 농촌진흥청을 끌고루 견학하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농촌현장인턴들은 보통 포장(圃場)이라는 논밭과 채소밭에서 하루종일 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포장에서 잡초제거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면서 느꼈던 호미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여 개량 호미를 만들어 제2회 '전국농수산아이디어공모전' 에 출품한 결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과 무료 특허까지 얻었습니다. 불혹(不惑)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저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혈기와 패기로 시작했던 사업의 실패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만 했습니다. 3년 전 파산과 면책이라는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은 줄 알았지만 부주의로 인하여 채무 목록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작년까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내는 현재 희망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살림이 어려운 관계로 외식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대상을 수상한 후 받은 상장과 상금을 아내에게 쥐어 줬을 때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 영재도 이유 없이 울더군요. 저 역시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나오는 눈물을 누가 볼까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새 눈가에 빙그레 웃음을 보이며 외식 한 번 크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날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저는 정말 포식을 하였습니다. 1인분에 5,000원하는 돼지갈비를 무려 10인분이나 딱딱 해치웠습니다. 시원한 물냉면과 함께 말이죠.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주인아저씨가 갈비를 2인분이나 서비스로 내주셨지만 벌써 뱃속이 가득 차 있었기에 마음만 받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나나 다들까, 세 식구 모두 배탈이 나 약을 지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맛보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날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이후 내내는 상금으로 작년 겨울 보일러 기름이 바닥나서 덜덜 떨어야 했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 기름통에 석유를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은 상금과 이번 달 월급을 합해 얼마 전부터 소음이 너무 크게 들리면서 수명을 다한 중고 구형 냉장고를 바꿀 수 있다는 기쁨으로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가득하기만 합니다.

이달의 우수인턴과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후에 일부 단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하여 늦었지만 상급의 일부분을 조금이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아내와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 농촌현장인턴을 시작했을 때 심은 벼를 추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벼는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식량작물계 김왕경 계장님의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껏 관리해왔던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탓인지 풍년 중의 풍년, 대풍 그 자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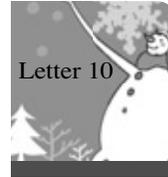
내년 농민들에게 증자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창고에 가득 쌓아 놓은 벼씨를 보면 저절로 가슴이 뿌듯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되살려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1월 말로 끝나는 인턴 생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짧은 근무로 아쉬움은 더해가지만 저에게 있어서 인턴생활 그 자체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턴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과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사이버교육도 이수하며 그동안 배움과 현장실습을 통한 저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알찬 인턴생활이었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다’ 는 희망을 심어준 농촌현장인턴 생활은 잠시 잊고 지냈던 가족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희망근로 역시 제 아내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잊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용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



## 사랑의 기술

● 글\_김강미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제 아들은 지금 중1로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공감하시겠지만 완전히 시한폭탄입니다. 준비물 안 챙겨 혼나, 숙제 안 해 혼나, 공부는 무관심인데다 지각도 다반사입니다. 한마디로 ‘엄친아’와는 거리가 아주 멀고, 자잘한 일로 매일 부모 속을 썩이는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싫어할 아이의 전형이지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저와 남편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 후 학교에서 ‘만빵사건’ 있었습니다. ‘만빵’이란 아이들끼리 만 원짜리 내기를 해 진 사람이 만 원을 주는 건데, 거의 장난처럼 말하지 현금이 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같은 반 친구가 개학하자마자 방학 전에 ‘만빵’ 내기를 했다며 “돈을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일주일가량을 괴롭혔고, 아들은 건디기가 힘들었는지 어느 날 학교를 안가고 사라졌어요.

다행히 몇 시간 방황하다 집으로 왔더군요. 화가 나는 걸 겨우 참고 이유를 문자 사연을 얘기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무슨 내기였냐?”고 물으니 내기를 한 적이 없고, 그 아이도 내기 내용을 모른다고 하네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 애를 만나 물었더니 “내기한 적은 없고 장난이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나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아이인지라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타이른 후 돌아서는데, 우리 아이 행동에 문제가 많아 친구들

이 괴롭히고 무시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WEE센터(학생생활지원단)를 소개시켜 주면서 상담을 권하셨어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전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가 지역별로 있다고 하네요. 전부터 아이의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던 터라 문의를 했더니 상담 날짜를 잡아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크게 변한다는 기대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저희를 상담해주신 분은 수녀님이셨는데,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대할 때 부모의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존 가트먼' 박사님의 이론인데, 아이의 감정코칭 5단계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하라는 게 요점입니다.

1단계 아이의 감정 인식하기.

2단계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기.

3단계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인정해주기.

4단계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5단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기.

이 5단계로 아이의 모든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에는 제재를 가하라는 거죠. 내용은 간단한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군요. 옛날 버릇대로 다그치게 되고, 혼내게 되고, 아이 감정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버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며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아이 이빠와 함께 오늘 대화를 되짚으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았을 걸' 하고 반성의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우리 가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침에 통학차를 7시 40분에 타야 하는데 7시 35분까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차를 놓치고 제가 지각을 막기 위해 데려다 주는 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20분부터 깨우다 안 일

어나면 고향을 치고 때리고 어르고 정말 매일 전쟁이었죠. 그러다 통학차를 태워 보내고 나면 제 가지칩니다.

수녀님은 무조건 일찍 깨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원에다 여러 가지 정상 빨라야 11시

고, 보통은 12시에 잠자리에 들죠. 대화법을 배운 후 아이의 피곤함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감을 표현했죠.

“피곤하지? 그래 피곤할 거야. 엄마도 너만 할 때 아침에 5분만 더 자는 게 소원이었어. 너도 그렇지?”

아이는 묵묵히 듣기만 하네요.

“엄마는 너한테 아침마다 화내기 싫거든. 이 좋은 아침에 그러면 너도 엄마도 기분이 다 안 좋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엄마가 몇 시에 깨워주면 잘 일어날 수 있겠나? 약속을 하자.”

“그러면 30분에 깨워주세요.”

“좋아.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면 아침을 못 먹는데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너를 위해 엄마가 준비한 아침을 먹을 수 있겠는데...”

“아침은 안 먹어도 되니 30분에 깨워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전 25분이면 미리 “○○야, 일어나기 5분 전이야” 하고 알려 마음의 준비를 시킨 후 30분에 깨웠어요. 역시 일어나기는 힘들어 하지만 자기



가 한 약속이라 일어나더군요. 아직까진 40분보다 1분 정도씩 늦어 차가 기다리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천국이네요. 전엔 아이 아빠가 “오늘, 학교 잘 갔냐?” 고 묻는 전화가 매일 왔으니까요.

이렇게 아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연습하고 책도 사 읽고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찾으며 지낸 지 6주째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이가 집에서 과학 수행평가 숙제를 챙기더군요. 어쩌나 기쁘던지요. 그 전엔 숙제나 수행평가를 안해 가서 무조건 0점이었거든요. 수녀님이 이젠 안 와도 되겠다며 다음 주에 마지막이라고 하시네요. 마음 같아서는 더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제 아이는 양호한 편이라고 더 급하게 도와주야 할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바람에 욕심을 접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처럼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부모님들이 조금만 자녀의 기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혼자서 실행하기 힘들면 책도 나와 있고요. 2006년 8월쯤인가 방송된 MBC스페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엄마와 아빠의 작은 변화에 아이가 변하니 정말 기쁘더군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보다 어릴수록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진 마세요. 저희 아이의 이 같은 조그만 변화도 6주가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변하고 있으니 아이도 더 좋아지리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아이에게 화를 내기 전에 조금만 참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아이의 조그만 행동에도 잘한 것은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착하다”와 같은 두루뭉술한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문제행동은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내 아이의 행동이 나쁘다고 혼내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공유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남자 생활백서

● 글\_김보성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일**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자는 일합니다. 이것저것 마다 않고 처자식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이 왔습니다. 남자는 토요일 아침까지 실컷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우같은 미누라가 깨웁니다. 산에 가자고 깨웁니다. 40대이니 운동을 해야 한다고 깨웁니다.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자려고 해도 기어이 깨우고 맙니다.

등산복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죽기보다 싫은 산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쉼터, 2쉼터, 3쉼터... 이 정도면 될 것 같지만 기어이 약수터까지 가자며 여자는 등을 밀어댑니다. 남자는 더욱 피곤합니다. 혼자 가지 왜 남자를 데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에 갔다 오면 금방 저녁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토요일은 지나 버렸습니다. 일요일엔 실컷 잘 수 있을까요?

일요일 아침이 되었나 봅니다. 여자는 자고 있는 남자의 이불을 경고 한 마디 안 하고 걷어버립니다. 탁탁 털면서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끌고 가 햇볕에 말립니다. 남자는 침대 패드라도 덮고 좀 더 자려고 기를 써보지만 헬리콥터 소리의 청소기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귀를 자극합니다.

여자에게 짜증을 내려고 두 눈을 떴더니 아들놈이 준비라도 한 듯 목욕을 가야 한다고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아들놈을 데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동네 남자들 만나 이런저런 대화도 좀 하고 바둑 구경도 합



니다. 목욕탕에서 오히려 더 잘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찰라 여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적당히 씻고 집에 오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알았어” 하고 짹막하게 한 마디 하고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담배 한 개비 물고 아들과 처량하게 걸어갑니다. 남자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겠지.” 쓴웃음이 납니다.

집에 갔더니 여자는 옷을 모두 갈아입고 남자 역시 간편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디 가려고 그럴까 잠시 생각해 보지만 보나마나 대형마트가 목적지입니다. 아들과 대중 옷을 갈아입고 자기용 기사가 되어 20분 거리의 대형마트로 마지못해 갑니다.

“아니 왜 꼭 나를 데리고 가야 하나요. 혼자 가도 되잖아” 라고 한 마디 했다 가 혼란 기억이 있어서 남자는 짝소리도 못하고 갑니다. “이런 곳에 올 땐 미리 살 것을 적어놓고 사야 절약 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 라고 하고 싶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놈 겨울 점퍼 고른다고 20여 분 정도 고르고 고르다 결국 안 삽니다. 그래서 남자는 더욱 화가 납니다. ‘차라리 사거나 하지. 그럼 그 20여 분은 뭐란 말인가?’ 그저 생각에 그칩니다. 여자에게 짝소리도 못 합니다. 아들놈이 카트

의자에 태워 달라고 합니다. 무려 25킬로그램입니다.

모처럼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두근 사려고 했더니 가차 없이 못 사게 합니다. 대신 남자가 싫어하는 주꾸미를 삽니다. 주꾸미가 남자에게 좋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자는 그 큰 마트를 휘젓고 다닙니다. 남자는 그저 따라다닙니다. 청과물 코너, 아동 옷 파는 코너, 유제품 코너, 육류 코너, 젓갈 코너, 라면 코너, 세제 코너... 여기저기 잘도 다닙니다.

남자는 지쳐서 모퉁이에 카트를 눈치껏 세워놓고 서성댁니다. 가만 보니 남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두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러나 있고, 피곤에 찌든 얼굴들입니다.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자만 들을 수 있게 외칩니다.

“거기서 뭐해? 뒤따라 와야지.”

남자가 출장갈 때 회사에서 대전까지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오늘 마트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카트 끌고 말이지요. 이렇게 일요일도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편히 쉴 수 없는가?’ 하고 자조해 봅니다.

아파트 계단에 나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켭니다. 두 모금도 빨기 전에 여자가 들어오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웃에 피해준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여태 피해준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남자의 마지막 휴식 내지는 여가인 컴퓨터 바둑을 두기 위해 컴퓨터에 앉을까 했더니 컴퓨터마저 이미 아들 차지가 돼 있습니다. TV는 여자가 차지해 침대 위에서 여왕처럼 누워 연속극을 보고 계십니다.

남자는 서재로 가서 책을 한 권 꺼냅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짓고 그 책을 읽어 봅니다.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남자는 두어 줄 읽고 이내 책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곤 허먼 멜빌의 《백경》이라는 책을 함차게 꺼냅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고래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



## 소원아! 네가 사랑스럽다

● 글\_박정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인 게 없지만 나이는 40 중반을 훌쩍 넘긴 결혼 18년차 주부입니다.

딸이 둘 있지만 그 딸들로는 부족한지 제게는 딸이 아주 많습니다. 9년 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살레시오수도회를 통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쪽 아이들을 만나다보니 딸 부잣집 엄마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목요일엔 정심여자산업학교(여자소년원)로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자유를 잃어버린 아이들, 오늘 그 녀석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또 새로운 친구들은 잠은 제대로 잤을까?

오늘은 멘토링을 통해 만나게 된 제 딸 소원(가명)이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40분 남짓입니다. 그런데 신중인플루엔자라는 놈 때문에 면회실에서 봐야 하니 겨우 4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짜가지고 간 간식을 풀어놓고 식당에서 밥 주문해 먹고 나면 얼굴 보고 이야기 할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 번 만남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소원에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되돌아가겠노라고 업포를 놓은 터라 제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집니다. 소원이가 씩 웃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세운 계획표를 내어놓으니 그

제야 제 마음도 놓입니다.

따뜻한 국이 식을까봐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밥 먹기를 재촉합니다. 준비해 가지고 간 간식도 다 못 먹고 들어 갈까봐 자꾸 입속에 과일이랑 과자를 넣어줍니다. “엄마도 같이 드세요” 하며 제게 과자를 먹여주는 소원이, 엄마라는 말을 해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우리 딸 소원이,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도 많으려만 애써 웃고 있는 녀석.

밥을 먹고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맞춰보라고 하네요. 감이 잡히질 않아 “뭔데?” 하고 재촉하니 “저 모범생으로 뽑혀서 매월 20만 원씩 할머니께 부쳐드릴 수 있어요. 아직 할머니께는 말하지 마세요!” 합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네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저요, 선생님들도 예뻐하시고 담임선생님도 잘해 주세요.”

얼마만에 보는 화색이 도는 얼굴인지요. 수수문 끝에 십 년이 넘어서 찾아간 엄마에게 또 다시 버림받아 가슴에 피멍이 잔뜩 들어있을 텐데도 어찌 저리 잘 견뎌내고 있는지요. 멘토 엄마에게 맛있는 빵을 꼭 제 손으로 만들어줄 거라며 자격시험을 위해 열심인 우리 소원에게 제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두서없이 사연을 올립니다.

소원아! 정말 잘했어. 그리고 너무 대견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오늘 네게 갈 때 집에 있는 딸들이 또 그러더라.

“딸한테 가실라고요? 언니한테만 맛난 것만 해주고 우리는 찌끄러기만 주고... 그래봐요!”

그렇지만 그건 응원의 메시지였어. 또 네게 주라고 편지도 주더라. 네 뒤에 응원군 많은 거 알지? 오직 네 걱정만 하는 아픈 할머니의 소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소원이 잘할 수 있지? 엄마가 기도하고 응원해 줄게.

사랑한다. 소원아! 파이팅! ♥

# 다문화 정이 흐르는 동네

◎그림 심경희

※ 이 만화는 김경희(서울시 중구 필동)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같은 필동은 이제에도 다문화  
없이 남이끼 나만하 지못.

그런데도 이집은 다문화 "정"으로 한층 하나가  
우리가 있다.



# 사랑하는 내아이에게

| 가족사랑 수기 |



여성시대는 한 달 동안 가족사랑 아이스크림 빙그레 투게더와 함께 가족사랑 수기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를 공모했습니다. 인터넷과 우편으로 모두 약 2,000통의 응모작이 도착했고, 모두 스물세 분의 수상자를 가렸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편지를 들으셨듯이, 감동적인 사연이 많았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아이,  
장애나 폭력, 따돌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아이,  
아직 방황하는 중이지만 사랑으로 기다려주겠다는 편지,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사랑과 인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월요일 여의도 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시상식과 수상자를 축하하는 특별공개방송을 가졌습니다.

화목상은 이경애 · 이광수 · 이현정 · 임영길 · 전진교 · 강경미 · 강숙 · 김선화 · 신정애 · 양광규 · 주경심 · 안진서 · 황점숙 씨 등이었고,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으셨습니다.



빙그레의 이성천 상무의 시상으로 행복상을 받은 경남 밀양의 김현주 씨는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받으셨고, 사랑상은 <아들의 홀로서기를 위하여>를 쓴 경북 성주의 김옥경 씨로 700만 원 상당의 황금가족여행권을 받으셨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황금가족여행권을 받는 가족상의 주인공은 <거북아, 사랑한다>를 쓴 경기도 부천의 김혜경 씨였습니다.

---

수상자를 가렸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워내시는 전국의 부모님들 모두가 사실은 다 수상자라는 의미에서 여성시대 가족 700분을 모시고 축하공개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요기라도 하시라고 빵과 음료를 나눠드린 후, 장윤정 씨가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

착한 막내아들 같은 홍경민 씨와 유리상자도 만났습니다.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는 아기가 둘이라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다고 했고, 아직 신혼인 이세준 씨는 미래의 아기를 생각하며 이 시간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품에 안길 아기들을 기다리는 예비 엄



마·아빠들의 영상과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부모인 분들이 자녀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강석우 씨는 색소폰 연주를, 샤이니와 노라조는 신나는 노래와 춤을 선물해 주었고, 아버지에게 대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인순이 씨와 양희은 씨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콧물 눈물 흘리며 사랑상과 가족상 수상작도 감상했습니다.

---

소설가 이경자 선생님의 심사평처럼 보내주신 모든 수기에는 '가족과 행복과 사랑'이 들어 있었고, 육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경험이 있었고, 자녀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있었고, 어려운 고비 고비를 넘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보내는 희망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만화가 최정현 선생님은 '작품을 읽으며, 우리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



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애·이혼·죽음 같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편지'가 많았습니다. 다소 어두운 시간이 있었다 해도 아이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전 여성시대 프로듀서 우중범 선생님은 심사하면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워즈워드의 말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아이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은 아니라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말도 떠올리셨습니다.

---

자녀사랑을 담아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지난 한 달, 우리는 사랑 많이 받고



\*가족사랑 특별공개방송은 11월 7일 토요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자란 아들딸인 우리 자신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센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보듬자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하고도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릴 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면 대신 아파주고 싶다고 하였고, 안 좋은 일은 부모님 당신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사랑을 받고 자라 부모가 된 우리는 그래서 그날 큰 소리로 다같이 소리모아 외쳤습니다.

---

"애들아! 엄마·아빠는 널 무진장 사랑한다!" ♥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고객  
굽네치킨 홍경호 대표

## 역지사지 발상으로 치킨업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굽네치킨

“지금은 소녀시대~ 지금은 굽네시대~”라고 외치는 광고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광고로 굽네치킨에 대한 인지도는 급속히 높아졌다. 과감한 광고 집행과 유명 아이돌 모델 덕분에 굽네치킨은 이제 전 국민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됐지만, 사실 굽네치킨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지난 2005년에 오븐구이 치킨으로 첫 매장을 오픈해 현재 전국에 7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두고 있는 굽네치킨은 채 5년이 안 돼 치킨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결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굽네치킨이 치킨업계의 강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키워드는 역지사지였다. 굽네치킨의 홍경호 대표는 “많은 이들이 초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초심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초심의 출발은 역지사지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딜리버리(delivery) 매장은 지금 여유가 충분치 않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본사가 그분들의 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저희의 모든 활동은 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굽네치킨은 점주들에게 가맹비·보증금·교육비·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업체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인테리어와 주방장비로 마진을 취하지도 않는다. 가맹점주들은 능력껏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본사에서는 무상으로 감리만 수행한다. 이렇듯 가맹점 개설 시 거품을 없애 점주들의 초기 오픈비용을 대폭 줄였다.

굽네치킨의 또 다른 특징은 지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 지사를 두면 매장을 보다 빨리 개설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장관리 능력의 부재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굽네치킨은 지사 대신 용인·대전·대구·마산·광주에 있는 물류



김포통진지점의 임현규 지점장(왼쪽)은 홍경호 대표에 대해 트렌드를 보는 안목과 남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한다고 말한다.

센터에 운영본부장과 슈퍼바이저들을 두고 직접 매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일까. 굽네치킨은 현재 치킨업계에서 점포매장당 평균매출이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

주 5일 배송 원칙도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주 3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경쟁업체에 비해 원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가맹점의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물류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굽네치킨은 매장이 10개에 불과하던 2006년에 신문광고를 시작해 100호 점 개설 시 라디오광고를, 300호 점 돌파 시 TV광고를 시작했다. 보통은 TV광고 집행 시 가맹점에서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마련이지만, 굽네치킨의 경우 본사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역 내에서 매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몫이라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본사의 몫”이라는 것이 홍 대표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홍경호 대표가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5년이지만 그가 사업을 위해 준비

한 기간은 10년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사업을 꿈꿨던 그는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택했다고 한다.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 남짓, 낮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히고 밤에는 부기학원을 다니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후 외식사업의 경험을 쌓기 위해 1995년 치킨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파파이스’에 입사, 이곳에서 10여 년을 근무했다.

“무엇이든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오래할 수 없어요. 매장 바닥청소부터 시작해 점장·슈퍼바이저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3개월 만에 오픈한 첫 매장에서 선보인 것이 바로 오븐구이 치킨이었다. 80년대 후반 양념치킨으로 시작한 치킨시장은 90년대 중반 BBQ로 대변되는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2000년대 초반 데리야끼 치킨 등으로 조금씩 그 트렌드가 바뀌어왔다. 2000년대 초중반 웰빙이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데리야끼 치킨을 대체할 제품으로 그가 내놓은 것이 바로 오븐구이 치킨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현재 오븐구이 치킨은 프라이드치킨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선두에 굽네치킨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360억 원, 올해 650억 원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굽네치킨은 내년에는 매출액 1,000억 원을 거뜬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홍경호 대표의 무엇이든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오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함께 일하는 점주들과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미래를 제시하는 굽네치킨.

김포통진지점의 임현규 지점장은 “기름에 튀긴 치킨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름에 튀기지 않고 순수한 맛을 내는 오븐구이 치킨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흥 대표의 트렌드를 보는 안목과 남보다 한 발 앞선 생각을 높이 평가했다.

흥경호 대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지난해에는 김포에 거주하는 학생 25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그 인원을 37명으로 늘렸다. 또한 생명의 숲과 김포시 축구협회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뮤지컬 <화성을 꿈꾸다>와 탈복소녀 권투선수 최현미의 메인 스폰서로 함께하는 등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흥경호 대표의 목표는 회사를 매출 1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굽네치킨에 이은 제 2브랜드 ‘굽네시대’ 테스트 매장을 12월 김포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 또한 굽네치킨 점주들이 홀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만든 브랜드라고 한다. 함께 일하는 점주들과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늘 한결갈기를 기대해본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김영광

|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 흥경호 대표의 성공 노하우 |
|---|----------------|
| <p>✦ <b>역지사지</b> :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든다. 점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기에 모든 거품을 없앴다. 본사는 오로지 물류 마진만 취한다.</p>                                   |                |
| <p>✦ <b>매장관리</b> : 지사를 두지 않는 대신 용인·대전·대구·마산·광주에 있는 물류센터에 운영본부장과 슈퍼바이저들을 두고 본사에서 직접 매장을 관리한다. 가맹점 관리가 잘 돼야 매출이 오르고 그로 인해 본사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p> |                |
| <p>✦ <b>물류시스템</b> : 주 5일 배송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됐고, 가맹점들은 원료의 재고 부담을 줄였다. 오늘 공장에서 양념해 숙성시킨 제품을 내일 매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굽네치킨 매장에는 냉동실이 없다.</p>  |                |



# ★매달 관리비가 돌아온다! IBK My APT 카드

요즘 같은 때, 달마다 관리비 만원할인이 어디예요~  
주유·휴대폰요금 할인에서 이체수수료 면제까지!  
일년이면 최대 636,400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아파트 카드도 역시 IBK기업은행입니다

## 알뜰한 주부들의 카드! IBK My APT 카드

-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 (최대 10,000원)
- GS칼텍스 리트당 60원 할인
- 통신회비 3% 할인
- 영화 2,000원 할인
- 의식 10% 할인
- 주요 농아공인 30~50% 할인
-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 할인

[카드신청은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ibk.co.kr)나 전화(1566-0088)로 발급 가능]

생활의 편리함과 깔끔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 AV MAX 통합 리모컨 및 이어폰

디지털시대를 맞아 가정용 디지털 TV 같은 가전제품뿐 아니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디지털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불편함도 함께 발생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여러 종류의 리모컨 제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인 통합 리모컨이다. 특히 (주)페타미디어는 해외에 수출되는 기술과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상표인 AV MAX 브랜드로 국내 통합리모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주)페타미디어의 AV MAX 통합리모컨은 과거에 이미 출시되었던 브라운관 TV 뿐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전 세계 LCD TV · PDP TV · VTR · DVD 세탑박스 기기를 손쉽게 3단계



설정방법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VMAX만의 고유 제품디자인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은 (주)페타미디어에서는 2009년



헬로키티(Hello Kitty)와 미피(Miffy)라는 캐릭터 브랜드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기존에 통합리모컨뿐 아니라 이어폰 · 헤드폰 · 휴대폰 충전기 · 휴대폰 쟈지 · 무선카팩 등의 제품에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미피(Miffy)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과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다.

- 기업은행 구로중앙지점 거래고객
- (주)페타미디어

문의 : 02-2027-3250 / www.petamedia.co.kr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여성시대 꾸러미

남성들의 땀과 인내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우아하고 서글프고 쓸쓸한 싱글 이야기 <참~ 화려한 싱글>,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금요일 <참~ 화려한 싱글>,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꾸러미 하나  
장용의 단결충  
소중한 인연  
최재홍 님

● 꾸러미 둘  
참~ 화려한 싱글  
추억의 자장면  
권광일 님

●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아들의 로맨스  
김무성 님



# 소중한 인연



● 글\_최재홍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보충대에 입소해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곳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28사단 태풍부대 보급 수송대였습니다. 부대 바로 뒤에 마을이 있는데, 몇 걸음 안 될 정도로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민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훈련이자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민지원을 나간 곳은 마당 한쪽에 아주 큰 대추나무가 있는 최씨 아저씨네였습니다. 연세는 저희 아버지와 비슷해 환갑을 갓 지나셨는데,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대민지원이 있는 날이면 저는 항상 최씨 아저씨네로 향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예쁜 딸이 있는 집, 먹을 것 많이 주는 집, 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골라 다녔지만 저는 오직 최씨 아저씨네만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대배치를 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사단장님이 부대 시찰을 온다고 했습니다. 소대장님은 “자, 이번에 사단장님이 오셔서 내무실도 들어온다니깐 청소 깨끗이 해라. 그리고 관물함 앞에 부모님 사진이나 애인사진 걸어두는 것도 잊지 말고. 이왕이면 애인사진보다는 부모님 사진을 걸어놓어라. 사단장님이 워낙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가족사진은 꼭 걸어두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있

었지만 저만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부모님 사진이 없는 사람은 집에 부탁해서 간직하고 있으라고 해서 집에 부탁을 하긴 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빈손으로 자대에 왔습니다.



‘아! 이럴 때 써먹으려고 훈련소에서

가족사진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진이 없는 걸 어떻게겠습니까. 그런데 자대 배치 후 처음 찍은 사진이 바로 대민지원을 나가서 최씨 아저씨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늘을 캐는 날이었는데, 일을 도와드리고 아저씨가 등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해드리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어 저는 그 사진을 관물함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부대시찰을 오셔서 제 관물함 앞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흠족해 하면서 “이 병사에게 휴가를 보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뒤통을 빚은 아버지를 씻겨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나 봅니다. 최씨 아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시 자대에 배치된 지 100일 전이라 휴가를 갈 수 없어서 대

신포상 외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병 주체에 외박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보답으로 저는 대민지원이 있으면 무조건 최씨 아저씨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최씨 아저씨는 부인께서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부대까지 소문이 날 만큼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특 하면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집안의 돈은 다 가져가고 돈 안 주면 아버지를 폭행하는 아주 상종 못할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안쓰러워서 되도록이면 그 집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해 추수철이었습니다. 벼 타작을 한다가에 저는 동기랑 같이 최씨 아저씨네로 갔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그 동네에도 콤파인으로 벼를 베었는데 기계가 한다면 논 가장자리는 낫으로 베어야 했고, 사람이 직접 기계에 벼단을 집어넣어야 했기에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 새참을 손수 머리에 이고 나오셨는데, 아저씨 얼굴이 심하게 다치셨더라고요.

“아버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혹시?”

“응, 이거? 아이고 글썽 어저께 대추나무 올라가서 대추 따다가 넘어졌자녀. 늙으니께 이제 눈이 잘 안보여서 그런지 잘 넘어지는 거 있지. 허허.”

그런데 그건 아들이 와서 그런 게 분명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상처와 때려서 생긴 상처를 구분 못할 저희가 아니었죠.

“아버님, 대추나무가 저리 낮는데 무슨 대추나무에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혹시 아드님이...”

저희가 아무리 물어도 절대로 당신 자식이 그랬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말여. 어저께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사 왔잖여. 그뿐인 줄 알어. 일할 때 입으라고 작업복을 사왔는데, 이거 봐봐. 이거여, 이거. 어때 좋아 보이지? 우리 아들도 니들처럼 너무 착해.”

그런데 그건 올해 봄에도 입고 일했던 옷이란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자식 홍보는 걸 원하지 않는 거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참을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벼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하나하나 아저씨네 집으로 옮겨놓고 마당에 벼가마니를 풀어서 햇빛에 말리려고 고무래질을 하고 있는데, 망나니 같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보이하니 추수철이니 쌀을 팔아 돈을 챙겨가려고 온 게 뻔했습니다. 당시 저희보다 다섯 살이 많았는데, 노름도 하고 나이트에서 일을 한다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안 준다면 아저씨께 또 행패부리는 거였습니다.

‘아저씨 혼자 기껏 키웠더니 저렇게 행동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어제도 돈 안 주는 아저씨를 때리고 결국 이웃집에서 돈 빌려왔더니 가지고 올라가 이틀 만에 또 내려와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저와 동기는 아저씨가 또 맞을까봐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에 화가 나서 그 아들놈을 막 때렸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헌병대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어떠한 이유든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곧바로 영창행입니다. 군인들끼리 싸우면 그냥 넘어갈 일도 민간인이 개입되면 절대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아저씨가 사정사정해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헌병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7일짜리 명을 짊어지고 들어갔다 퇴창하는 날, 아저씨께서 저희 부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손을 어루만지면서 미안하다면서 울먹이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못난 아들 둔 죄로 남의 귀한 자식들 욕보이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들이 또 와서 행패 부리면 곧바로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영창이야 뭐 한 번 갔는데 두 번이야 못 가겠어요. 해해. 그리고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성경책도 읽게 되고, 해해.”

며칠 뒤, 또 대민지원이 있어서 최씨 아저씨네로 갔는데 “니들 나 댐에 고 생했으니께 오늘은 말여 일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라. 내가 맛있는 거 해 줄 테니. 오늘은 그냥 나랑 실컷 놀자. 부대에는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할 테니깐 걱정하지 말구 오늘은 나하고 노는 거야. 알았지? 니들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저는 아저씨 기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것을 말했습니다.

“음, 통닭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어요. 아, 막걸리도 마시고 싶어요. 또 삼겹살도 먹고 싶어요. 해주시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니들은 내 새로운 아들들인데 그것 못 해줄까봐. 근데 비싼 것 좀 먹고 싶다고 그러지, 이그. 암튼 내가 택시 타고 읍내 나가서 얼른 사가지고 올게. 삼겹살은 여기 있으니까 미리 굽고 있어라.”

아저씨는 휘파람을 불며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올 시간이 지나셨는데 안 오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버스가 다니는 큰길가로 나갔는데, 아저씨께서 공사중인 농수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뎠는지 그대로 넘어지셨는데, 돌에 부딪쳐서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는지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바로 부대 근처여서 곧바로 부대 차량을 이용해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아저씨는 넘어지는 그 외중에 뭐가 그리 소중한다고 손에 든 봉지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튀김은 이미 피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는 의무대에서 급히 지혈을 하고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아저씨를 살렸다는 이유로 사단장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먹고 싶다는 거 사주려고 다녀오시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오히려 최씨 아저씨를 구해줬다고 사단장 표창을 받자니 참 난감했습니다.

퇴원해 돌아오던 날 아저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부대에 음식 한보따리 들고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준다는 약속 못 지켜서 이렇게 사왔어. 이거 부대 식구들과 나눠 먹어. 그리고 대민지원 있을 때마다 우리 집에 꼭 와. 알았지? 내가 그때는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니들은 이제 내 아들이여.”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다음해 봄에 제가 상병을 달았을 때,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드시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아들 때문에 속상해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다른 집들은 모내기하고, 고추 심고 다들 바쁘는데 대민지원을 나가려고 해도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로타리를 칠 때 꼭 대민지원 나오라고 해놓고서는, 맛있는 거 해준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번에 일 끝나고 대문 잠그고 같이 큰 고무통에서 같이 목욕하자고 그래놓고서는 그렇게 아저씨는 약속은 안 지키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훈련 때문에 저희는 못 가고 소대장님과 인사계님만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동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서럽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농번기철에는 최씨 아저씨가 떠오릅니다. 아니 또 다른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목 놓아 울던 거 모르시죠? 아시려나? 거기서는 맘 편히 사세요.’

제가 제대할 때 아저씨네 대추나무에 어찌나 대추가 많이 열렸던지요. 아저씨의 사랑이 그렇게 많이 열렸나 봐요.

제 추억록에는 아직도 아저씨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등록해 줄 때 환하게 웃던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하네요. 하늘에서도 그때처럼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

# 추억의 자장면



● 글\_권광일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대**학 자취생 시절이었습니다. 한 달 용돈을 받으면 처음에 술값 등으로 გადა지출해서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항상 빈곤한 생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역시 돈은 다 떨어지고 반찬이라고는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원룸 3층에 살았는데, 집에 들어올 때 본 1층의 자장면 그릇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결국 방을 뒤지고 뒤져서 겨우 1,200원을 찾아냈습니다. 자장이 먹고 싶어 슈퍼마켓으로 가 즉석 자장면과 구운 계란 2개를 샀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또 끓이면서 제가 참 한심했습니다.

‘제발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좀 살자. 이게 뭐니!’ 혼자 자책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스프를 넣는 순간! ‘이런 망했다.’ 물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일단 맛을 한번 봤습니다. 중국집 자장면을 물에 행군다면 딱 그 행군 물이 그 맛일 겁니다. 자장면을 망쳤다는 분노와 이걸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일단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5분 정도 졸였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티도 안 나더군요. 면발은 점점 우동 면발이 되어 가는데... 초조해지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춘장을 넣자. 어차피 자장을 춘장으로 만드니. 아까 1층에 자장면 그릇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숟가락 하나를 들고 1층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단무지를 찍어먹는 장은 손도 안 대고 랩으로 덮여 그대로 있었습니다. 빠르게 비닐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뚫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뭐해?”

돌아보니 중국집 배달원이더군요.

“어! 너, 이 자식 그릇 훔쳐 가려고 했지. 어제도 이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너지. 너지, 임마.”

“아, 아니요, 그 그게.”

“아니긴 이 자식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사장님한테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

그 사람은 날 잡으려고 다가오더군요. 순간 잡히면 모든 걸 뒤집어쓰고 돈도 없는데 억울하게 변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반대편 출구로 뛰었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외쳤습니다. “아니예요. 훔친 거 아니예요.”

이런! 그 배달원은 “서, 임마”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더군요. 저는 최대한 좁은 골목으로 도망갔지만 그 놈의 오토바이는 제가 지나가는 곳은 다 지나가더군요.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한 손에 춘장을 쑤 숟가락을 들고 2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대가로 겨우 그 사람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가기가 겁나더군요. 웬지 그 사람이 잠복하고 있을 것만 같고요. 큰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1시간 정도 더 숨어 있다가 겨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없더군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울컥 하더군요.

왜냐고요? 모르신다면 알려드리죠. 따라하세요. 일단 550CC 물을 끓이고, 즉석 자장의 면을 넣으세요. 물은 절대 한 방울도 버리지 마시고요. 과감히 자장스프를 털어 넣으세요.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고 단골 중국집에 가서 춘장 한 스푼을 얻어와 거기에 넣고 끓여보십시오.

그 라면을 당신이 먹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두 눈엔 눈물이 맺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많이 가난했던 그 시절이 이상하게 더 그림네요. ♥

# 아들의 로맨스



◎ 글\_김무성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저에게는 연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14개월 차이입니다. 둘째아이 임신소식에 저는 뿔 듯이 기뻐고, 아버지·어머니도 온 동네에 한 톱 내셨습니다. 회사의 모든 동료들이 박수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와이프는 몇 번 울었고, 장모님은 한동안, 아니 꽤 오랫동안 저를 짐승처럼 보더군요.

올 3월에 처음으로 첫째아이가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한 일주일 울고불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는지 잘 가더군요. 한 살 어린 동생 때문에 네 살인 녀석이 형 취급받고 돌이 싸우면 먼저 혼나고...

첫째아이 이름이 '호빈'인데 '호찬'이란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아들은 동생보다 그 아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급기야 호찬이랑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호찬이도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에 좀 다니고 있을 때, 애들 엄마들끼리 타조농장인지 간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아빠는 저 혼자더군요. 그런데 성은이라는 아이가 호빈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챙기는 겁니다.

급기야 성은이 엄마는 저보고 딸한테 "니 시아버지 오셨다. 잘 보여라" 하고 농담을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성은이가 어린이집에서 호빈이를 좋아해 결혼한다고 찍었다더군요.

호빈이는 그 다음부터 호찬이를 버리고 성은이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은이가 호빈이보다 머리 크기가 두 배라는 겁니다. 네 살 동갑 여아인데, 이두박근이 억지로 끼입은 원피스 위로 살며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그들이었고, 저 역시 우리 아들의 첫 번째 로맨스를 망치고 싶진 않아 기쁘게 응원해줬습니다.

그 후, 가끔 어린이집에 갈 때, 호빈이를 버스까지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보니 완전 어렸을 적 김태희를 빼다 박은 아이가 있더군요. 바로 '해리'라는 아이입니다. <뽕뽕뽕 뽕로로>의 해리는 남자인데, 이 아이는 여자입니다. 호빈이는 성은이 간택으로 자기 스스로 성은이의 남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 녀석이 들떠 있는 겁니다.

"내일은 해리 생일이다. 꼭 어린이집에 가야 해.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안가고 어린이 집에 가야 해. 생일축하 노래를 해주고 박명수의 <냉면> 노래도 불러줄 거다" 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와 아들은 뭔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놈이? 그냥 넘어가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버스에 데려다주기로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와이프가 "회사에 늦으면서까지 왜 자기가 바래다주냐?"고 했지만 "남자끼리의 일을 어찌 아녀자가 알려고 하나?"며 같이 아파트 후문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던 우리 둘.

"아빠가 비밀 지켜줄게. 해리가 좋아? 성은이가 좋아?"

계속 부끄러워하던 호빈이가 우유를 먹고 입을 닦지 않아 입술이 허연 상태로 저한테 아주 조용히, 하지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미소로 말합니다.

"해리!"

그런 미소 저도 예전에 지어보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저보다 무려 거의 20년이나 빨리 그 미소를 짓고 있네요. 왜 이렇게 대견한 걸까요. ♥



## 가족회의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딸이 단원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과목별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는데, 거의 2주 단위로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하교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던 딸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펴는데, 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슬그머니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사회 단원평가 시험지였습니다. 시험지를 펼쳐보았더니, 한 문제를 틀려 96점 맞았습니다.

‘다음 중 가족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이라는 문제를 틀렸습니다. 답은 ‘가족의 휴가장소’인데, 딸은 ‘동생의 등교시간’에 표시를 했습니다. 100점을 못 맞아 시무룩해 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왜 ‘동생의 등교시간’이라고 생각했어?”

“지난번에 어머니·아버지께서 동생한테 등교시간이 너무 늦다며 더 일찍 학교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만날 등교시간이 가까워서 학교에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로 가족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족회의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등교시간은 학교에서 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가족의 휴가장소’잖아. 어휴!”

“휴가장소는 우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아버지가 결정하셨잖아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의 말이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만날 등교시간에 맞춰 ‘땡’ 하면 가는 명중이에게 좀 더 일찍 일어나 더 빨리

학교에 가라고 한 것도, 아이들과 함께 휴가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자”고 한 것도 우리들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집은 가족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족회의가 무엇이고, 가족회의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일은 늘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아이들은 그 결정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을 맞아야 당연한 것처럼 완벽하기를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은 96점을 맞고도 자랑은커녕 혼이 날까봐 걱정을 하며 시험지를 슬그머니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학년 학부모 모임에 나갔던 아내가 다른 학부모한테 들었다며 아이들이 일주일째 교실 맨 앞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를 괴롭혀 선생님이 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도 아닌 일주일씩이나... 체벌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당신이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봐요.”

아내는 남편보다 침착했습니다. 급식을 하고 온 날 저녁,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급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그 아이가 명중이랑 같은 모둠이 됐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명중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명중이가 모둠 친구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명중이 혼자 앞에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물

“그래? 명중이가 괜히 괴롭혔대?”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좀 뒤처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모둠에서 칭찬스티커를 못 받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명중이가 ‘너 때문에 못 받았다’고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반복되다보니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명중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며 부딪혔을 때 명중이가 신경질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 그 녀석. 칭찬스티커 좀 못 받으면 어때서…”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다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내일 학교에 가면 그 친구에게 사과하도록 하세요. 용기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앞으로는 그 친구한테 잘한다고 칭찬해 봐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아들은 반갑게 달려와 90도로 인사를 하고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개도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둠이 칭찬스티커 2개나 받았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금방 풀어지고, 감정도 남아 있지 않고… 저도 울해가 가기 전에 사소한 감정이나마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가족회의를 해야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가족의 겨울여행!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 2, 4학년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사람 속의 사람》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은 넓은 아버지가다.

택배 포장을 풀어헤친 딸아이의 입이 짝 벌어졌다.

“어머! 유치원선생님이 보낸 거야. 왜 예쁘다.”

탈실로 뜯은 병어리장갑 두 켤레와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현이야, 지난 번 편지 고마웠어. 장갑은 선생님이 손수 뜯은 거야. 빨강은 네 거고, 노랑은 네 동생 거야. 선생님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언제나 현이의 초롱초롱한 큰 눈망울이 눈에 선하다.’

딸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이듬해 다른 곳으로 전근한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선물은 우리 가족이 평생 못 잊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 비싼 선물이면 아이들이 마냥 좋아할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

‘초등학교 때까지인가? 부모님이 내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줬다. 하지만 중학교 올라오고는 미역국도 안 끓여준다. 아니, 초등학교 때에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 준 적이 없다. 그냥 선물을 사 주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하라고 돈을 주셨다. 그래서 생일이 기쁘지 않다.’ (Y고 2학년)

학생의 토로에는 부모의 자상한 관심을 바라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생일을 챙겨 주었다고 했던 이 학생은 곰곰이 생각 하더니 그것마저 ‘아니’라고 부인한다. 돈으로 대충 해결하려는 형식적인 인사치레였다는 것이다.

‘비 오는 날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추적추적 오는 비를 그

대로 다 맞고 신발까지 젖은 채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야 했다. 슬펐다.’  
(M여고 3학년)

비를 맞으며 홀로 귀기했던 이 학생의 서러움 속에는 부모를 향한 연민의 감정도 녹아 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그럴 거라는... 이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

‘엄마가 직접 손뜨개로 옷을 만들어 주었을 때를 기억한다.’

‘눈 내리던 날 엄마가 베란다에서 사진을 찍어주었을 때 행복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노란 나비옷을 입고 운동회 무용을 했을 때 참 행복했다.’

행복했던 추억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학생들의 답변이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아버지가 등을 밀어줄 때 행복하다고 했고, 한 여중생은 엄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행복하다고 했으며, 부모가 나를 믿어줄 때 행복하다는 학생도 있었다. 엄마가 안아주거나, 잘 자라고 이불 덮어주고 뽀뽀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특히 스킨십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자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선물일 듯싶다.

선물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대개 ‘가격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할까?’부터 생각한다. 다음으로 그 가격에 ‘무엇을 살까?’를 고민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물의 가격이나 종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대신 ‘주는 이의 애정과 관심이 받는 이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선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유치원선생님이 보내온 병어리장갑에는 주는 이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스며 있고, 동생 것까지 만들어 보내는 배려에다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표현한

카드까지 곁들여 있었기에 행복한 선물이 되었던 것이다.

Y고 2학년생이 생일에도 못 먹었다는 미역국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녔을까? 장에서 질 좋은 미역을 구해 온 어머니의 정성은 설설 끓는 국솥에서 모락모락 사랑으로 피어오른다. 미역국의 구수한 냄새를 기다리는 저녁시간, 식구들의 마음은 한껏 훈훈하다.

깨소금에 무쳐낸 쇠고기 고명까지 얹으면 금상첨화! 왕도 부럽지 않다. 한 그릇 미역국에는 이 같은 정성이 녹아 있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

비 오는 날, 맞벌이 부부여서 마중 나갈 수 없는 부모라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자녀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

‘사랑하는 딸,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 꼭 챙겨 가라. 씩씩한 우리 딸 멋쟁이! ♥’

언젠가 지인으로부터 와인을 선물받았는데, 그 보관법과 마시는 법을 깨알 같은 글씨로 손수 적어 함께 보내왔다. 주는 이의 정성이 듬뿍 느껴져서 감사의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지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지혜를 발휘할 일이다.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상담 교사로, 상담 경험을 (가난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 부부 연말정산을 하자



“독일은 나라의 장벽도 없었는데, 우리는 50년을 같이 산 마음의 장벽이 아직도 무너지지를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구나!”

친구 아버지께서 김장배추를 줌 보내주시마 전화를 하신 말미에 녀 두리처럼 내게 하신 말씀이다.

친구 부모님은 몇 해 전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사신다. 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사시니 그저 자식들과 나눠먹을 만큼 심심 풀이 삼아 채소도 기르고, 고구마도 심고, 과일나무도 조금 하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배추인사도 하고 부모님 동향을 슬쩍 떠보았다. 칠순을 넘긴 어머니가 최근에 자궁계통의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 회복과정에서 아버지와 크고 작은 신경전이 벌어지는 중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안부인사차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가 받으셨다. 나도 팔순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나름 반(半)의사 노릇하는 터라 이런저런 것들을 추천했다.

“도무지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듣지를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솔깃해도 내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 에다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란다. 아파도 자기가 아픈 거니까 상관 말 래. 아프다는 사람 보면서 눈만 멀뚱 멀뚱 뜨고 있어야 하니 이거 원, 답답 해서.”

베를린 장벽까지 동원해서 마음의 벽 운운하신 내막이 이것이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전직 교사로 5남매 장남과 결혼하여 꽤 험한 시집살이를 했다. 설상가상 내리 딸만 넷을 낳았다. 속이 속이 아닌 세월인데 남편은 시집살이의 고충을 하소연해도 “나랑 사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한마디뿐이었다. 아들선호사상이 강고했던 시대에 유언무언으로 겪는 설움에 대해서도 “딸만 있어도 내가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 하고 그만이었다.

“남들은 점잖다고들 하지. 그런데 우리 아들 아버지는 점잖은 게 아니라, 목석이다 목석. 자기말대로 내가 자기랑 사느라고 시집살이도 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하는 건데, 그러

면 어떤 위로나 격려가 있어야지, 신경 쓰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 누가 신경 쓰고 싶어서 쓰냐? 상처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는 체면 지키고 나는 속병 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는 남편에게 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고 있는 중이다. 신경 쓰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대로 아파도 내가 아픈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게 그것이다.

어머니의 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의 벽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도 느끼지 못했고, 자식은 물론 누가 보아도 문제없는 부부였다. 아버지가 더 당황하는 것도 그래서다. 처음에는 병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이려니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병을 계기로 잠복하고 있던 빙하가 솟아오른 것이다.

자식들이 중간에 들어서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내가 이제는 자식들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거기 맞춰서 살아야겠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려거든 오지도 말라”는데 뭘 어찌 해볼 수 있겠는가.

빙하같이 얼어붙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쉽지 않다. 짧은 시간에 될 일이 아니다. ‘감동감작쇼’ 이벤트를 연다 해서 웃으면서 녹을 한 순간의 빙하가 아니잖은가. 오래된 병일수록 근치를 해야 하듯, 마음의 빙하엔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녹여야 한다.

그 어머니가 서른여덟살 때, 김장을 하고 몸살이 났다. 올망졸망 애들뺨을 달고 시누·시동생 삼시 세끼 밥해 먹이며 200포기의 김치를 했으니 무쇠가 아닌 몸이 어찌 견딜까. 밤새 끙끙 앓았다. 곁에서 자던 남편이 깨어났다. 김장 끝에 몸살이 난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그러면 미리 미리 약을 사다 먹을 것이지” 하고는 “날 밝으면 병원에 가보라”고 하곤 끝이었다. 약을 사러 갈 틈이 어디 있으며, 애들과 아침밥을 놔두고 병원행이 가당기나 한가. 앓는 소리가 시끄러워 껌 것일 뿐이라는 야속함에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으

며 앓았다.

김장철만 되면 그 상처가 도졌다. 잊고 있다가도 저절로 생각났다. 문제 풀이 과정은 접어두고 정답만 말하던 남편, 이제 와서 그게 쉽겠노라 말한들 무슨 소용인가. 목적같은 남편이 알아들을 리 없는데, 김장독에 김치를 눌러담으며 그 상처도 껍썩 깊이깊이 눌러놓았다.

“내가 그랬대? 아, 정말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는 펼쩍 뛰셨다. 이렇게 증발된 기억이 50년 결혼생활에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기억이 왜 없겠는가.

“진작 말을 하지!” 그렇다. 진작 말했어야 했다. 진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부부간에 쌓인 것들을 정산했어야 했다. 고마운 것과 서운한 것, 본받을 것과 고칠 것, 수치타산을 맞추었어야 했다. 수시로 해동을 했다면 이렇게 두껍게 얼어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말이다. 정산 시즌이다. 부부도 연말정산을 해보자. 올 한해 톱텐뉴스를 뽑고, 최고 연기자상, 최고의 가수상, 인기상을 시상하듯이 올 한해 우리 부부 사이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사과를 나누자. 그렇게 겨울을 갈무리 해서 봄에 또 꽃이 피는 것이 아니겠는가.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 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대하·젓갈·김 찾아 떠나는

# 충남 홍성 여행



예전에 한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충청도로 여행을 가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고. “가깝지유, 금방이에유”라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충청남도 홍성 남당항은 대하(새우의 일종)로 유명한 곳이다. 신선하고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대하를 맘껏 먹을 수가 있다. 맛난 것을 찾아 길을 나선 홍성 남당항은 충청도 사람들의 인심 좋은 “가깝지유”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남당항에 가면 눈동자가 휘릭 돌아갈 정도 대하를 구워주는 노점·천막집·횃집이 늘어서 있다. 약 90집이 넘는다. 전라도 곡창지대 평야처럼 넓다.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어느 집을 가야 할지 고민에 휩싸인다.

가족과 떠난 여행길에서 내 임무는 정말 맛난 집을 찾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돌아오는 대답이 희한했다.



남당항 대하



“새우가 다 그새우지유. 더 맛있는 집이 어딴시유. 기분이 좋으면 맛나고 기분이 나쁘면 맛 없지유. 그냥 기분 좋아 보이는 주인 있는데 가유!”

웃음이 났다. 하지만 최고의 맛집을 고르고 싶은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다시 조심스럽게 관공서로 향했다. 공무원에게 물어봤다.

“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유. 여기보다 오천항이 나유! 그리 가유!”

그곳의 거리가 궁금해졌다.

“먼가요?”

“아니어유. 가깝지유. 금방이에유.”

가족들을 부러부러 택시에 태워 오천항으로 길을 떠났다. 헉! 후배의 말이 맞았다. 택시비가 약 3만 원이 나오는 먼 거리였다. 여행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든다.

이제 가을도 끝나고 겨울이 다정한 친구처럼 찾아왔다. 대하의 맛은 지나갔

지만 홍성은 이듬해 봄까지 맛있는 새조개가 있기에 찾아가볼 만하다.

홍성에 가면 오서산 등반을 빼놓을 수가 없다. 남당항에서 한껏 부른 배를 오서산에서 즐긴다. 오서산은 해발 791미터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산 정상에 억새풀이 서양 인상과 화가 작품처럼 펼쳐져 있다.

오서산 등반이 조금 벅찬 이들은 용봉산이나 백월산으로 향해도 좋다. 용봉산은 해발 281미터, 백월산은 394미터다. 낮은 산이지만 매력은 철철 넘친다. 용봉산은 중국무협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기암괴석이 뽐족하게 깎은 연필처럼 서 있다.



광천 토굴 새우젓

오서산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는 광천읍이 있다. 광천읍은 토굴새  
우젓과 김이 유명하다. 광천읍에 독  
배라는 곳에 가면 토굴 안에서 발효,  
저장하는 새우젓을 맛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한 주민이 소금에 절  
인 새우젓을 자연 토굴에 넣어 보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이 월등  
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토굴 새우젓  
의 유래다.

독배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길게 토굴 새우젓을 파는 집들이 늘어서 있다. 그 집들 뒤에 토굴이 있  
는데 굳이 새우젓을 사지 않더라도 그 안을 구경할 수 있다. 한여름에는 냉장고  
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하다. 광천은 김도 맛나다. 갯벌에서 바닷물과 태양이  
키운 김들이다.

조용하지만 유머가 있는 동네, 홍성. 맛과 여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

여기도 가봐유!

홍주성과 여하정

홍주성은 최장 1,772m에 달했으나 810m만 남아 있다. 성내 관아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현재 조양문·홍주아문·안회당·여하정만 남아 있다. 여하정은 고종 33년 홍주목사 이승우가 신축한 이래 역대 홍주목사들이 정사를 구상하며 휴식을 취했던 곳으로, 목조기와의 6각형으로 된 수상정이다.

만해생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승려·시인인 한용운 선생께서 태어난 곳이다. 생가는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초가인데 양원으로 1칸을 달아내 광과 헛간으로 사용하고 울타리는 싸리나무로 둘러싸고, 바깥에 흙벽돌로 화장실을 만들었다. 이후 생가 좌측 뒤편에 사당과 삼문을 신축했다.

그림이 있는 정원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산 85-4에 있는 매현농원을 76,364㎡의 개인 수목원으로, 각종 수목 및 화훼류 등 50종 6만여 점이 조성되어 있다. 전시시설, 편의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다. 1991년부터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본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하고 관리사 및 전시관, 사당 등을 건립했다. 1일 방문객 300여 명이 찾아와 김좌진 장군의 삶을 배우는 역사의 현장이다.

공리포구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을 앞에 두고 있으며,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바라 볼 수 있고, 천수만을 끼고도는 임해관광도로의 경치가 일품이다. 대하·새조개·봉장어 등이 잡힌다.

〈자료출처 : 홍성군청〉

## 한 시대의 종언

2009년은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해였던 것 같다. 두분의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우리와 영원히 작별했다. 지난해의 최진실에 이어 올해는 장진영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이영애가 결혼하고, 장동건과 고소영이 교제 사실을 밝히는 등 영원히 결혼이나 연애를 하지 않을 것 같은 톱스타들도 조금씩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2009년에 새로운 생을 살게 된 그들처럼 앞으로 우리의 세상 역시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특히 MBC <100분 토론>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의 마지막 방송은 우리 사회의 나이갈 모습에 대한 일종의 예언처럼 보였다.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100분토론의 나이갈 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패널들과 자신의 외모에 대해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엄기영 MBC 사장에게는 “<100분 토론>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밤 11시에 고정 편성해 달라”는 농담 반 원망 반(?)의 말을 던지기도 했다. 패널들은 열띤 토론을 하면서도 시종일관 상대에게 지나친 공격은 자제했고, 그러면서도 미디어 법처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100분 토론> 특유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논쟁은 하되 예의는 지키고,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위트를 지킬 수 있는 토론.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상향이 아닐까.

지금처럼 정치·사회 전반에 찬반이 격렬하게 나뉜 사회에서는 그들 사이의 원만한 소통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손석희 교수



가 <100분 토론>을 맡은 지난 8년여의 시간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토론 문화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실험 기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손석희 교수는 “행복한 사회자였다”는 말과 함께 <100분 토론>을 떠났다. 물론 손석희 교수 같은 진행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손석희 교수는 하차와 함께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마이클 잭슨·손석희·장동건은 모두 한 시대를 뒤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간 뒤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또 다른 스타나 지도자일까. 어쩌면 그들과의 이별은 우리가 한 명의 절대적인 지도자나 스타 대신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암시 같은 것은 아닐는지. 과거의 시대가 TV에 의해 혹은 극적인 정치 상황에 의해 한 명의 위대한 스타가 등장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스타가 되고, 모두가 자신의 발언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 스타가 되고, 스스로 세상에 말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다른 한 편에서는 신종플루와 빈부격차, 심지어는 영화 <2012> 같은 작품에서는 종말론마저 나오는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2000년대의 첫 10년이 끝난 뒤 다시 오는 10년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화합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꿈꿔 본다. ♥

## 굴국 한 사발



‘사랑밥상’ 공연을 앞둔 주말엔 전라남도 고흥을 다녀왔다. 집집마다 유자나무가 몇 그루씩 심어져 있고, 몇 개 달린 유자빛이 고향이다. 마침 나로우주센터의 송신탑이 보이는 산기슭의 반듯한 농가였다.

길에서 ‘우리는 고흥굴이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쓰인 현수막을 보았다. ‘왜 저런 말을 써 붙였을까?’ 의아했는데 고흥에선 굴양식을 안 한다. 천연으로 바위에 붙어사는 석화가 그곳의 굴이란다. 참 희한하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손을 안 탄 느낌이였다. 잠시 지나 이유를 알았다.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 개발이 제한되어 있단다.

‘아하! 사람 손을 안 타 이리 편안하구나!’

늘 부대끼는 두 가지 명제는 개발이나, 보존이나다. 많은 이권이 부딪히고 또한 눈에 안 보이지만 아까운 것들, 돈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만다. 이 세상에는 돈 갖고 어찌지 못할 귀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새로 이은 듯한 슬레이트 지붕과 작지만 오래된 돌담, 돌담도 달팽이 모양으로 대문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물려 있다. 즉 행하니 남의 집 마당이 죄 들여다 보지 않도록 옛날 속곳처럼 틀림 꽃잎처럼 좌우가 조금씩 물려 있다. 대문 쪽은 그대로 살리되 동그라미가 조금 물려 들어가 있어 집안일을 남에게 구경시키지 않게 되어 있다.

주인이저씨께선 맛의 달인이었다. 한 번 맛보고는 단호하게 한마디 하면 더는 군말이 없으셨다.

“나는 군소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짜면 안 돼요.”

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인지! 음식은 간인데, 자기 기준의 간이 딱 맞지 않음 못 먹는단 말씀이다.

그 집 뒤쪽에 쌀두가마니는 될법한 크기의 신안비금도 소금이 아주 탐스러워 보였다.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아주 맛이 좋아질 듯하다.

고조부 때부터 지은 집터에 지금도 사시는 그 댁이 부러웠다. 뒤뜰엔 장독대와 유자나무 그리고 편안히 오갈 수 있는 텃밭이 있는데, 석화잡데기가 무더기져 있었다. 다른 거름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고조부부터 짓고 살던 집이 80년째 들어 마가지는 바람에 지금 새로 지은 지가 47년째요, 그러니 돌담은 127년 된단다. 제주도 돌과는 다른 돌이지만 쌓은 식은 같아서 흙이나 시멘트를 이겨 메우지 않고 돌끼리 잘 물리게 쌓았다. 바닷바람이 만만치 않은 곳인지라 담장이 조금 높은 듯해서 멀리서 보면 담장 위로 추녀가 물려 보인다.

유자차를 권하시기에 한 잔 먹고 나왔다. 햇살이 어찌나 쨍한지, 겨울이 아니었다.

그 댁에서 해먹은 요리 중 좋았던 것은 굴국이었다. 텃밭의 무를 얇게 써져 썰고 뜨물 받아 된장 풀어 끓이다가 굴 넣으면 끝이었다. 자연산 굴이라 그런가, 아님 그 댁 된장 맛인지 하여튼 달고 깊은 오묘한 맛이 났다. 마술이었다. 그 굴국 한 사발을 먹으니 다른 것이 부럽지 않았다.

뱃속이 따뜻하니 남부럽지 않은 것인가. 결국 남부럽잖은 것도 별거 아니다. 내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다. 여러분들의 겨울도 그러한 나날이었으면 좋겠다. ♥

## 아들의 독립



내 생애 최고의 설렘인 유럽가족여행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SBS드라마 <그대 웃어요>가 연장을 하기로 모든 연

기자가 합의를 보았는데, 서너 회가 아니라 16부가 연장이 된다니, 이젠 연장이 아니라 새 드라마 한편 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월 초순에 드라마를 끝내고 아들 녀석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가정 하에 '1월 말쯤 평생 처음 저 서쪽 끝으로 가리라' 언제부턴가 버리고 버르던 그 여행이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 여행은 어쩌면 2009년 한 해, 정말 바쁘게 살면서도 나를 견딜 수 있게 한 구원의 등불이었다.

드라마를 연장하지는 제의를 받고 잠시의 뜸도 없이, 동시에 아내가 떠올랐다. 나는 몰라도 아내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뻔하다. 여행을 무척 좋아하는 아내는 나보다 더 이번 여행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늘 고정수입에 목말라하던 아내의 갈팡에 16부 연장은 마흔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길가다가 돈다발을 맞은 격이다. 순간 여행이 어려워진 게 아쉬울까? 아니면 16회 연장으로 굴러들어오는 출연료가 더 좋을까? 솔로몬도 판단하기 어려운 미궁에 아내는 빠져들 것이라는 생각도 잠시, 나의 눈앞에는 촛불을 끌 수 없는 아내의 입모양이 떠올랐다. 좋아서 입을 닫을 수 없으리라.

아들 녀석 수능 끝나고 우리 가족 넷이서 동네 카페에 들렀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비장한 표정으로 "어쩌면, 우리가 계획했던 유럽여행이 어려울 것 같

다"고 슬쩍 떠보듯이 미안해하며 얘기했다. 딸아이는 뭐가 뭔지 모르는 무덤덤한 특유의 표정을 지었는데, 아들 녀석은 상상도 못 했던 반응을 보였다.

"아빠!"

오래 전, 현정화 선수가 파이팅! 하던 그 몸짓으로 기쁨을 감추질 못했다. 이 무슨 해괴한 세레머니란 말인가? 아니, 저 녀석에게 3일 년이 넘도록 채찍과 당근 중 매력 있는, 확실한 당근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유럽가족여행이 나만의 착각이었던 말인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물론 나는 못 본 척했다. 그 몸짓에 대해서 묻고, 길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감정이 상할 것 같은 불길함이 스쳤기 때문이다.

요즘 시험 끝내고 유난히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더니, 우정이 엄청 싹텃는지 새벽에 오기 일쑤이더니 친구들과 놀 생각에 여행도 싫다는 거였다.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약간의 좌절감·배신감·허전함...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늘 속으로 결심했던 아들의 독립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족 네 명이 여행하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하던 것에서 아내와 둘이 떠나는 여행으로 바꾸어 그려보게 되었다. 갈 지 못 갈 지도 모르게 된 여행이 되어 버렸지만 아들 녀석의 본심을 알게 되면서 섭섭함을 이겨야 하며, 아들의 독립이 아니라 나의 독립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자각을 했다.

지금은 새벽 1시. 내일이 학기말고사 마지막 날인데, 아들 녀석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 전 같았으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러니 했는데, 수능이 끝나고부터는 이 밤에 친구들과 킁킁대며 싸다니고 있을 아들을 그리게 되었다.

얼마나 좋을 때인가? 그때는 친구 만날 생각에 밥도 먹지 않고 튀어나가던 바로 그 시절이 아닌가? 옛날의 나를 기억해내면서 섭섭해했을 나의 부모님을 떠올려본다.

'아들아, 축하한다. 너의 길을 이제 가는구나.' ♥

## 후일담처럼



퇴근길, 지하철이 온통 학생들로 붐볐다.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큰 가방을 메고는 불이 밝그레 상기된 학생들이 칸칸마다 한 가득. 그제야 ‘아, 오늘이 수능시험 날이지, 지금쯤 시험을 마치고 나올 시간이지’ 싶은 생각이 들며 시끄럽게만 느껴지던 아이들의 모습, 그 대화들이 가슴 찡하게 다가왔다. 인생의 작은 터널 하나를 이제 갓 지나온 아이들, 그리고 9년 전 이맘 때 그들처럼 그 터널 앞에 막막하게 서 있던 나의 모습.

2000년 11월, 수능을 딱 5일 앞두었던 날은 나의 생일이였다. 온통 날카롭고 모든 것에 날이 서 있던 시기, 누군가 “너, 생일이라며?” 지나가듯 한 마디만 건네도 울음이 터질 것 같던 나는 등교하던 발걸음을 돌려 교복을 입은 채 무작정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그리고 강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를 걷고 걸어 다다른 곳이 바로 MBC 앞. 열두살 때부터 막연히 MBC에서, MBC라디오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던 내게, 5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은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이라기보다 7년 동안 간직해온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한 엄청난 관문, 혹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잔혹한 평가과제인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 앞에서 건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그 건물이 마치 수능시험의 현신인 것마냥 어찌나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던지, 그만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눈물을 글썽이다 돌아왔더랬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른 후 대학에 입학하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MBC에 입사했다. 그리고 지금은 주저앉아 울던 그 벤치를 매일같이 무의미하게 지나치고 있다. 그렇게까지 두려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에 미소를 흘린 것도 처음 몇 번,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지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앞을 그냥 지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때와 꼭 같은 먹먹함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본다. 실수가 두려워지는 순간이다. 맡겨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관계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무언가 똑바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나는 여전히 작은 실수가 나의 꿈을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이 터널을 무사히 지나지 못하면 영영 낙오자가 되는 것을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부르르 떠다. 조금해진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른다. 아직도 크고 작은 시험에 대처하는 나의 방식은 벤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는 그것과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저 작은 시험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기에는 아직 덜 자란 것이 분명하다.

지하철에서 열심히 언어영역이 어땠고, 짝은 문제가 어땠다 떠드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조금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졌다. 다가가 ‘지나고 나면 너희가 치른 그 시험도 별 일 아니다’ 하며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어졌다. 나를 밀어낼 이상한 눈초리들이 두려워 그저 속말로, 웃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토닥이고 나니 신기하게도 나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 지금 눈앞에 닥친 시험이 두렵다 마냥 앉아 울지는 말자. 멀지 않은 시기, 나의 울던 그 자리를 비운 걸음으로 무디게 지나칠 때가 다가올 것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

##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은 그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1890년 경)에서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표현했다.

신화에 따르면, 여인상을 인간으로 바꾼 이프르디테 여신의 축복을 아직 눈치 채지 못한 피그말리온이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조각상에 입을 맞춘 것이었다고 한다. 바짝 마른 입술을 갖다댄 순간 그는 화들짝 놀랐다. 조각의 입술에서 사람의 체온과 숨결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시 입술을 갖다 대고 가슴을 더듬어 보았다. 아! 소녀는 더 이상 돌이 아니었다. 갈라테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그 소녀는 어느덧 뺨을 붉히며 그의 키스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피그말리온은 소녀를 빼가으스러질 듯 껴안아주었다.

제롬은 그 축복의 장면을 근육질의 남자가 소녀의 허리춤을 걱정해 겨워 힘껏 껴안는 모습과 맑은 피부의 여인이 그에게로 몸을 활처럼 수그린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녀가 발을 채 굽히지 못한 것은 아직 그녀의 다리가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엉덩이 위의 따뜻한 살색과도 구분이 되는, 여전히 창백한 대리석 빛의 다리는 소녀가 키스를 통해 생명의 기운을 온몸에 퍼뜨리는 중임을 시사한다.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화가는 어느 사랑의 동화에서처럼 키스가 그 점화식이 되도록 표현했다.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스스로 만들어 자기의 연인으로 삼는 것만큼 완벽한 소망의 실현은 없을 것이다. 누구든 사랑하는 이의 소망에 맞춰 나를 다듬어 주는 것, 그것은 연인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연인이 나의 이상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제롬,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1890, 유화, 88.9x68.6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